

와! 김희선 억수로 변했네

metro®
메트로 2014년 2월 4일 화요일 제2906호 www.metroseoul.co.kr



소치에만 있는 쌍둥이 변기



"국회의원 전원 단체촬영 66년 만이네요" 제19대 국회의원들이 3일 국회의사당 정현관(본청) 앞 계단에서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전 국회 사무처 직원의 촬영 자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단체기념사진을 찍는 것은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식 뒤 제헌 국회의원 193인이 단체기념사진을 촬영한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

SNS로 들어간 뉴스 읽힐까

페이스북, 신문+잡지 장점 살린 뉴스 앱 '페이퍼' 출시…카카오도 3월 이전 서비스 예정

하루 5억 명이 사용하는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4일(한국시간) 뉴스 앱 '페이퍼'를 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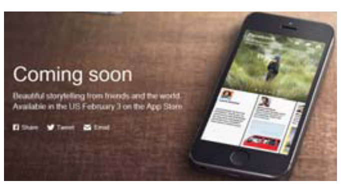
페이퍼는 모바일 플랫폼이 내놓을 수 있는 궁극의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어 기존 언론사는 물론 스마트폰을 필두로 한 모바일 환경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표 모바일 콘텐츠 기업 카카오가 1분기 내 페이퍼와 경쟁하는 뉴스 서비스를 선보일 가능성이 커 'SNS 뉴스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페이퍼는 한마디로 신문처럼 보는 잡지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신문의 정확성과 속도에 잡지의 다양성을 갖춰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지루할 틈이 없다.

예를 들어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류현진과 추신수의 활약상이 궁금하면 '스포츠' 섹션을 구독할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 알고 싶다면 '푸드'와 같은 코너를 구독 설정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류현진의 활약상을 ESPN과 같은 메이저 언론사에서 보도할 수도 있고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경기를 관전한 개인의 페이스북 글이 독특하게 전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페이스북 뉴스앱 페이퍼의 초기화면 중 하나.

즉 페이스북 편집자들이 주요 신문·방송사의 뉴스를 제공하고 페이스북 자체 알고리즘이 톱스타나 저명학자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게시글·영상도 함께 보내준다.

포털에 들어가 게재된 뉴스 가운데 마음에 들었던 것만 읽었던 기존의 수동적인 소비 행태와 달리 독자가 먼저 원하는 뉴스를 정한 뒤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는 셈이다.

페이퍼는 IT 생태계를 상당 부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는 평가다. 극단적으로는 현재 TV나 라디오, 신문에 나오는 모든 콘텐츠를 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소소한 뉴스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 미국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내려받을 수 있는 페이퍼가 상반기까지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할 경우 콘텐츠를 제휴하려는 파트너는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의 구글처럼 모든 정보를 빨아들이는 'IT 블랙홀'이 될 수 있다.

페이스북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수년째 페이퍼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어 온 것만 봐도 이 서비스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페이스북 광고 매출의 절반 이상은 모바일에서 나왔다.

카카오도 페이퍼를 주목하고 있다. 현재 페이스북 메신저를 사용하는 국내 유저는 많지 않으나 페이퍼 덕에 메신저를 갈아탈 공산은 얼마든지 있다.

카카오 역시 관련 서비스를 위해 다방면으로 인재를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누가 페이퍼나 카카오의 뉴스 서비스에 콘텐츠를 공급할지가 또 다른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들 뉴스 콘텐츠는 맞춤형 잡지 스타일을 표방하는 만큼 중소 규모의 언론사나 개인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뉴스를 접점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는 산업 전체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면서도 "기존 상품과 얼마나 차별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블랙이글 5389㎞ '에어쇼 비행'

국산 T-50 9대 대만 등 3개국 거쳐 오늘 싱가포르 도착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Black Eagles)'이 3개국을 거친 장거리 비행으로 싱가포르 국제에어쇼에 참가한다.

방위사업청은 3일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B 9대로 구성된 블랙이글은 11~16일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개최되는 에어쇼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랙이글은 2개 조로 나눠 지난 1일 제주공항을 이륙했고, 중간 기착지인 타이완 가오슝, 필리핀 세부, 브루나이를 거쳐 4일 창이공항에 착륙한다. 5일부터 현지 적응 및 사전훈련에 들어간다.

제주에서 싱가포르까지 5389㎞에 달하는 장거리 비행을 위해 항공기마다 보조연료탱크 3개를 부착하고 비행에 나섰다.

방사청은 "이런 장거리 비행은 처음으로 국산 초음속 항공기인 T-50의 순항 능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에어쇼 기간에도 4회 공연을 펼쳐 우리나라 공군과 국산 항공기 우수성을 전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과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에어쇼 기간 T-50 계열의 항공기 수출을 위한 홍보전도 펼친다.

/김민준기자 mjkim@

아역스타 향한 '마녀사냥'



기자 수첩
양 성 운
<연예스포츠부 기자>

설 연휴 마지막 날 아역배우 김새론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김새론의 친구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사진과 글 때문이다.

공개된 사진에는 와인병이 놓여있는 탁자를 배경으로 김새론과 친구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김새론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 또 다른 사진에는 탁자에 담배가 놓여있다. 미성년자임에도 술과 담배를 할 수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에 네티즌들은 김새론이 실제 술과 담배를 하고 있는 것 처럼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새론은 물론 그날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친구까지 해명에 나섰다. 그는 "저는 이 사진 중에 한 명이고, 저희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라며 "새론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더 친해지고 싶어 집에 초대했습니다"라고 모임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새론 역시 자신의 미니홈피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네티즌들은 '확증편향'(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것)에 빠진 듯한 모습이다.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말이다. 김새론의 해명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친구의 해명은 '쇠귀에 경 읽기'가 됐다.

소속사가 3일 "논란이 확산될 시 소속사 차원에서 보다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당부했지만 이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소속사의 강경 대응과 김새론의 해명을 떠나 확증 편향에 빠진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

800ℓ 라더니 무려 16만ℓ

여수 원유유출량 GS칼텍스 추정치 200배 넘어 축소 논란…"사고 원인은 도선사 실수"

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 원유 유출사고로 유출된 원유가 애초 발표보다 200배가 넘는 16만4000ℓ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축소' 논란이 불거졌다.

여수해경은 3일 '우이산호 충돌오염사건' 중간수사 발표에서 "우이산호는 여수항 도선사지회 소속 도선사 2명이 탑승해 원유부두로 접안을 시도하던 중 안전한 속력을 넘어 약 7노트의 속력으로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해 충돌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원유부두시설인 원유 이송관 등 3개의 송유관이 파손돼 원유, 나프타, 유성혼합물 등 약 164kℓ가량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0ℓ들이 820드럼에 이르는 양으로 사고 초기에 GS칼텍스 측이 추정한 800ℓ의 205배, 수사 초기 해경이 추정한 1만ℓ의 16배에 이르는 것이다.

해경은 이번 유출량 추정을 30인치 납사, 36인치 원유, 18인치 유성혼합물 등 3개의 파이프에 들어 있는 기름 용량을 근거로 했다.

결국 회사 측 추정 유출량을 토대로 방제 계획을 세웠던 해경은 초동 조치에 문제를 노출했고, 유출된 기름은 이미 먼 바다로 퍼지고 말았다.

◆ 4일째 기름 제거 총력전

한편 사고 4일째인 이날 여수시 공무원 200명을 비롯해 해경 기동방제팀 17명, 해양경찰교육원 신임경찰교육생 100명, 한국해양구조협회 30명, GS칼텍스 110명, 항만청 60명, 소방서 50명, 신덕마을 주민 290여 명 등 900여 명이 투입돼 기름 방제 작업을 펼쳤다.

피해가 큰 신덕마을 현장에는 매일 1000여 명의 인력이 해안가의 바위나 모래에 들러붙은 기름을 제거하는 '갯닦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초·중·고 봄·가을 '관광방학'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봄·가을에 '관광주간'을 신설하고 이 기간 초·중·고교도 재량 휴업으로 단기 방학 효과를 내도록 유도하는 관광진흥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뉴스&뉴스

정몽준 "시장 출마 당 요청 가볍게 생각 않을 것"



정몽준(왼쪽) 의원이 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유철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입장 변화가 감지됐다.

정 의원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3일 오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서울시장 출마 결심과 관련해 "너무 늦기 전에 필요한 결정을 할 것"이라며 "당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면 당의 견해를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케리 미 국무 이달 중순 방한…북 문제 등 논의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달 중순께 방한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케리 장관은 지난 1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2주 후에 중국에 있을 것"이라며 방중 계획을 공개했다.

케리 장관은 방한 시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엔 만날까…남북 내일 이산상봉 실무접촉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이 5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다.

통일부는 3일 오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5일 실무접촉에 동의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북측은 이날 오전 10시께 5일 또는 6일 남측이 편리한 날짜에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안해왔고 정부는 곧바로 "북측이 우리 측의 제의를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5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

북한의 이날 입장 통보는 우리 정부가 이달 17~22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고 지난달 27일 제의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이제라도 이산가족 상봉 문제 협의에 호응해 나온 것을 환영한다"며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제일 빨리, 최대한 빨리 (상봉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은 실무 접촉 하루 전인 4일 대표단 명단을 교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는 최소 2주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실무 접촉으로 애초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2월 중순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민준기자

安 보란듯…민주, 의원소환제 등 '특권 내려놓기법' 추진

민주당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김한길 대표는 3일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과 '국회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특권방지법안은 부정부패 사건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를 담고 있다. 정치자금 편법 모금 창구로 지적돼온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법안도 포함된다.

선물, 향응, 경조사 금액은 5만원 이하만 허용하고, 특히 선물은 1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간 1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김 대표는 또 부정부패 감시를 위해 국회의원 윤리감독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외 출장의 경우 윤리감독위의 사전 승인을 받고, 사후에 비용 지출과 선물·향응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외 공항 귀빈실과 열차 의전실 사용 대상에서 국회의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김민준기자

서울 '초록특별시' 만든다

율곡로 사과나무 가로수길·테헤란로 가로정원 조성…37곳에 '맞춤숲'도

서울시가 골목길·광장·빌딩 옥상 등 도시 전체를 공원화하는 '푸른도시만들기' 프로젝트를 구체화했다.

김병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3일 '푸른도시선언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시민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공원이 되도록 공원 녹지 개념을 변화시키고, 생활 속 곳곳의 녹색공간을 연결해 녹색 복지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계획은 지난해 4월 선포한 '푸른도시 선언'을 정책화한 것으로, 42인의 공공조경가그룹과 1000여 명 시민들이 10개월 이상 현장 연구를 거쳐 마련됐다.

테헤란로와 삼일대로변은 띠 녹지를 두르고 꽃을 심어 '가로정원'으로 꾸민다. 돈화문로엔 감나무를, 율곡로엔 사과나무를 심는 등 가로수길을 변화시킬 계획이다.

올해 157km의 서울 둘레길이 완성되고, 인근의 마을길과 성곽·사찰을 연계한 '서울길 네트워크'도 개발된다. 서소문공원~정동공원~정동극장~환구단~명동예술극장~명동성당을 이어 첫 '역사가 흐르는 서울공원길'로 지정된다.

녹지 서비스도 나이대별로 세분화해 태아와 산모를 위한 '태교숲' 5개소, '유아숲체험장' 25개소, '청소년 모험의 숲' 5개소, 노년을 위한 '치유의 숲' 2개소를 2016년까지 차례로 조성해 시범 운영한다.

자연 속에서 지혜를 찾는 '희망목공소' '공원놀이학교' 등 공원 내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할 계획이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중무장' 영하 5도까지 떨어진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목도리와 장갑으로 중무장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거리를 걷고 있다. /뉴시스

'입춘 한파' 오늘 서울 영하 10도

입춘인 4일 경상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등 맹추위가 이어지겠다.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낮 기온은 영하 4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밖에 경기 북부지역은 아침 최저기온 영하 15도에서 11도 분포를 보이겠으며 낮에도 영하 6도 안팎으로 전망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다"며 "어린이와 노약자는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동해안에는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기상청은 당부했다.

추위는 5일까지 이어지다가 6일 낮부터 영상으로 기온이 오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윤다혜기자 ydh@



결심공판 출석한 이석기 이석기(가운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 참석해 피고인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1심 선고 17일 이전 나올듯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이석기는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은 "내란을 음모한 적이 없다. 나와 진보당에 새겨진 주홍글씨가 벗겨지길 희망한다"는 요지로 최후 변론을 했다. 1심 선고는 17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김민준기자

성접대 받고 조폭 뒤 봐준 강력반 형사

서울중앙지검은 조직폭력배의 도피를 돕는 등 뒤를 봐주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조모(4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명수배된 장안파 행동대원 정모씨를 검거하지 않고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주는 대가로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고급 호텔 숙박비 대납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10년 3월 정씨를 만나 "검문이나 음주에 걸리면 빨리 전화해라"며 자신의 명함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강력범죄수사팀에 근무하면서도 폭력조직원과 수년 동안 같은 집에 살며 정씨 등 조폭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의 도피 생활을 도와준 박모(37)씨 등 폭력조직원 2명도 함께 기소했다.

/윤다혜기자

방송대 미달학과 7일까지 모집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지난달 29일 오전 9시 2014학년도 신·편입생 정시 합격자를 발표했다.

유아교육과 2학년의 편입 경쟁률이 49대 1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교육과 2학년 편입은 15대 1이었다.

방송대는 오는 7일까지 미달 학과에 한해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독감 비상 'A형 독감'이 유행하면서 3일 오후 용산구 소화아동병원이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석촌호수 폐사 집오리 'AI 음성'

서울시는 최근 석촌호수에서 죽은 채 발견된 집오리 등 서울지역 야생조류 폐사체 13마리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여부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에 따르면 현재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는 총 10건 18마리로 이 중 5건 13마리가 AI 음성으로 판명됐다. 나머지 5건 5마리는 검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시는 폐사체 발견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송해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발견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소독과 예방 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송파구 석촌호수와 강동구 길동에서 집오리 1마리와 까치 3마리가, 25일에는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에서 왜가리 1마리가, 27일에는 강동구 강일동에서 야생오리 1마리가, 28일에는 강남구 삼성동에서 검은머리방울새 7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윤다혜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미국 초대 대통령에 조지 워싱턴 선출

1789년 2월 4일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아메리카 혁명군 총사령관으로 뽑혔던 그는 영국군과의 여러 차례 격전 끝에 요크타운에서 콘월리스 장군을 항복시켜 사실상 전쟁을 끝냈다. 이후 그는 제헌회의를 이끌면서 국민의 두터운 신망을 얻었으며, 결국 선거인단의 만장일치로 초대 대통령이 됐고 3년 후 워싱턴은 제2대 대통령에 또다시 선출됐다.



'깔깔깔' 명절 피로 날아가는 소리 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 버드내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간단한 운동으로 명절 스트레스를 풀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결혼 않고 동거 뭐 어때!

성인 남녀 46.1% 찬성…"자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 40% 넘어

우리나라 국민 절반 정도가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7월과 8월 전국 20~65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족 가치관 인식 및 태도 조사' 결과 응답자 중 46.1%가 '결혼하지 않아도 남녀가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또 20대와 30대에서는 동거 찬성률이 각각 53.1%, 59.2%로 절반을 넘은 반면 50대와 60대에서는 각각 63.1%, 69.1%가 동거에 반대했다. 성별로는 남성(50.6%)이 여성(41.5%)보다 동거에 더 개방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결혼의 당위성을 묻는 질문에는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답변으로 결혼을 선택의 문제로 정의하는 사람이 35.5%로 가장 많았으며 '반드시 해야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25.6%뿐이었다.

이 문항에서는 남녀 간의 입장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답한 여성 비율(44.4%)이 남성(26.8%)보다 약 18%포인트나 높았으며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은 여성(19.4%)보다 남성(31.7%)이 뚜렷했다.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41.4%가 찬성, 57.6%가 반대했으며 찬성률은 여성(47.6%)이 남성(35.3%)보다 높았다.

'부부보다 부모-자녀 관계가 중요하다'는 견해에는 10명 중 7명(67.7%)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사연은 '가구·가족의 변동과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가족 규모가 축소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우리 사회의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남편 상속재산 34억 돌려줘라"

최태지, CNK에 반환판결



최태지(55·**사진**) 국립발레단 명예 예술감독이 CNK 인터내셔널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회사 측에 반환하게 됐다.

최씨의 남편은 CNK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모 변호사로 최씨와 자녀들은 임씨가 주식 거래로 얻은 차익을 물려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3일 CNK가 "주식 단기 매매로 얻은 돈을 반환하라"며 임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CNK 측에 총 33억8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두 자녀는 임씨가 사망한 뒤 피고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임씨가 CNK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녀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주식의 매매 차익 총 33억8000만여 원을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회사 측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윤다혜기자



'집 구하기' 대학가는 전쟁 중 신학기 시작을 앞둔 3일 오후 서울 흑석동 중앙대학교 앞 담벼락이 자취방, 하숙집 관련 전단지로 도배돼 있다. /연합뉴스

수능 한국사 쉽게 절대평가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필수과목이 된 한국사 시험은 학교 수업을 충실히 들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출제된다.

교육부는 3일 한국사의 수능 필수과목화에 따른 사교육 확산을 방지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한국사 사교육 수요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시험 난이도로 현행 교원 임용시험의 자격 기준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보다 쉬운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까지 출제 경향과 예시 문항을 개발, 일선 학교에 한국사 학습 방법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하반기에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등을 통해 문항을 검증할 예정이다. /윤다혜기자

법원 "적색등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절반 책임"

보행자 신호가 적색등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행자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3일 교통사고 피해자 A씨와 가족 등이 가해 차량 가입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원고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한 잘못이 있어 운전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해 우측 슬관절 전방과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윤다혜기자 ydh@

구정소식

주민자율 청소봉사단 운영

서울시 마포구는 3일 동별로 '주민자율청소 청결봉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의 자율적 청소를 독려하기 위해 전통시장·대형쇼핑센터·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매월 1회 '자율 청소의 날'을 지정해 운영토록 지원한다.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

서울 강서구는 3일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무료 중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18세 이하 소년·소녀 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유공자, 탈북자, 5·18 관련자 중 저소득층 등이며, 범위는 6000만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계약이다.

도봉구 저소득층 희망마차

서울시 도봉구는 지난달 27일 방학1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기부 식품을 전달하는 '희망마차' 행사를 개최했다. 설탕·라면·쌀 등 30여 개의 품목이 실린 희망마차를 통해 저소득가정 1가구당 5개 물품이 지원됐다.



지혜를 나누고 인생을 배우는 대학

2014학년도 신·편입생 추가 모집

인문과학대학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일본학과

사회과학대학 |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미디어영상학과, 관광학과

자연과학대학 | 농학과, 가정학과(가정관리학 · 식품영양학 · 의상학 전공), 컴퓨터과학과, 정보통계학과, 환경보건학과

교육과학대학 | 교육학과, 청소년교육과, 유아교육과, 문화교양학과

프라임칼리지 | 금융 · 서비스학부(회계금융 · 서비스경영 전공), 첨단공학부(산업공학 · 메카트로닉스 전공)

모집기간 2014. 1. 30(목) ~ 2. 7(금)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Brazil



Batman participou do ato contra o aumento da passagem de ônibus, que vai subir para R$ 3 | RUDY TRINDADE/FRAME/FOLHAPRESS

Manifestação contra reajuste tem pulo coletivo de catracas

No mesmo dia em que foi publicado no Diário Oficial o reajuste de 9% das tarifas dos ônibus municipais, ontem, cerca de 150 manifestantes protestaram no início da noite, na Central do Brasil, contra o aumento – o valor da passagem vai subir de R$ 2,75 para R$ 3 a partir do dia 8.

Os manifestantes ocuparam a área antes das roletas de acesso aos trens, da SuperVia, e promoveram um pulo coletivo de catracas. Estimulados pelo grupo, passageiros também passaram sem pagar.

O movimento partiu da Candelária, de onde os manifestantes saíram pela pista lateral da avenida Presidente Vargas. A via chegou a ser fechada rapidamente, provocando retenções no sentido Praça da Bandeira.

Na Tijuca, um outro grupo, de cerca de 100 pessoas, protestou na rua São Francisco Xavier, altura da av. Maracanã. Segundo a PM, o ato era contra a Copa do Mundo.

Gratuidades

O decreto da prefeitura também amplia as gratuidades no transporte público. Estudantes universitários com renda familiar de um salário mínimo terão direito a 76 viagens por mês, incluindo finais de semana e feriados. São 16 viagens a mais. O mesmo acontece com estudantes do ensino fundamental e médio da rede pública. METRO RIO

Protesto ocorreu na Central do Brasil | FÁBIO TEIXEIRA/FOLHAPRESS

metro HongKong



南京年花滯銷

'메이드 인 교도소' 명품의상 패션쇼

"정말 아름다워요!" "환상적인 춤이에요!" 지난달 28일 중국 지린성 여자 교도소에서는 연신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올해 이곳 재소자들은 경찰과 함께 패션쇼와 벨리댄스 등을 선보이며 특별한 새해를 맞았다. 행사에 사용된 의상과 장신구는 재료 선정에서부터 디자인, 제작까지 모두 재소자들의 손을 거쳤다.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판모씨는 "옷을 어떻게 만드는지 전혀 몰랐지만 교도소에서 기능을 익혔다. 내가 만든 옷을 다른 사람이 입는 것을 보면 행복하다"고 말했다.

metro France



L'inscription injurieuse a été écrite sur un mur extérieur de l'église Saint-Jean-Baptiste de Belleville.

Une église prise pour cible dans le XIXe

Paris

Il a déjà déposé une dizaine de plaintes, en vain. Hier matin, le curé Stéphane Esclef a une nouvelle fois découvert des inscriptions haineuses sur ... Esclef s'étonne que ces faits puissent encore arriver. « Je suis dans l'église Saint-Jean-Baptiste de Belleville depuis un an et demi, dit-il. Ça fait près de dix fois que nous avons droit ...

성당 벽 신부 비방글 해도 너무해!

프랑스 파리의 한 성당이 벽에 쓰인 익명의 비방글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벽에는 "더러운 신부는 너의 도덕성이나 먹어치워라. 성당이 빛날 땐 오직 불에 탈 때뿐이다"라고 적혀있다. 성당의 스테판 에스클레프 주임신부는 "이곳에 1년6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러한 비방글을 열 번 정도 봤다.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것 같아 걱정이다"고 밝혔다. 성당 측에선 비방 낙서를 발견할 때마다 지워왔다. 경찰에 좀 더 강한 순찰과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요구했지만 변화가 없다고 성당 측은 불만을 토로했다.

축구의 나라 '안티 월드컵' 몸살

버스요금 인상에 분노한 브라질 리우 시민들 무임승차 시위…"이게 다 월드컵에 돈 쏟아부은 탓"



오는 8일부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시의 버스요금이 인상된다. 현재 2.75헤알(약 1200원) 선인 승차요금이 9% 인상된 3헤알로 오르는 것.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내 각 지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150명에 이르는 시위대는 시의 중심인 수페르비아역 개찰구 앞에 모였고 이내 표를 구매하지 않고 개찰구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시위를 전개했다. 이어 일반 승객들도 시위에 동참해 규모가 매우 커지게 됐다.

첫 시위가 일어난 수페르비아역 외에도 100명 규모의 또 다른 시위대는 상 프란시스코 사비에르 도로에서 집회를 열어 요금 인상에 대한 항의성 시위를 이어나갔다. 군경은 이 시위가 월드컵 반대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해 시민들의 빈축을 샀다.

그러나 시 측은 "요금 인상은 대중교통 무상 혜택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인상 이유를 밝혔다. 시 정부는 앞으로 최저 소득 이하 가정의 대학생이 주말과 휴일을 포함해 한 달에 최대 76회까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교생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시 측의 해명으로 시민들의 분노는 다소 줄어든 듯 보이나 월드컵을 위해 무리한 재정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브라질 정부에 대한 불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브라질 중앙은행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의 기념주화 판매를 시작한다. 주화의 가격은 백동(구리와 니켈 합금) 주화의 경우 30헤알(약 1만3000원)에서부터 순금 주화 1180헤알(약 52만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은화의 경우 브라질 월드컵 마스코트 풀레코(Fuleco)가 새겨져 있다. 다음달부터 판매될 백동 주화에는 수비하고 있는 골키퍼, 헤딩, 가슴 트래핑, 패스, 드리블, 슈팅 등 6개의 동작이 새겨질 예정이다. 기념주화는 브라질중앙은행 홈페이지 또는 각 지점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결제는 현금으로만 할 수 있다.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metro Russia



ла от истощен

5개월 된 딸을 2주 홀로 방치 숨지게 한 엄마

18세 '소녀 엄마'가 생후 5개월 된 딸을 2주간 집에 홀로 방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 러시아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달 27일 페테르부르크의 친척집을 찾은 남성이 유아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는 발견 일주일 전 심각한 탈수증세로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아이 엄마인 알료나 이파토바의 위치를 파악하고 곧바로 체포했다.

페테르부르크 조사위원회의 세르게이 카피토노프는 "이파토바가 지난달 14일 집을 나간 뒤 2주간 친구들과 노느라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카피토노프는 "이파토바의 남편이 있지만 일때문에 집에 자주 돌아오지 못했고 사건 발생 당시에도 직장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음식과 물도 없이 5개월 된 딸을 방치한 무정한 엄마 이파토바는 '신생아 방치 및 살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딸이 죽어가는 동안 유흥 생활을 즐긴 '철없는 엄마'의 소식을 접한 페테르부르크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파토바는 집을 나가 신년 파티를 즐기고 자신의 19세 생일 파티를 열어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 이후 집에 돌아와서도 딸을 챙기기는커녕 곧바로 SNS에 생일 파티 사진을 올리고 17차례나 친구들의 생일 축하 메시지에 댓글을 달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아동권리 전권대표 스베틀라나 아가피토바는 "이번 사건의 책임은 부모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있다"며 "사건 발생 전부터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지만 아무도 이들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나 루트첸코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3일>

코스피	1919.96	(−21.19)
코스닥	513.62	(−1.58)
금리(국고채 3년)	2.88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086.00	(+14.00)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4시간 지연 소동

농협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한때 지연돼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거래량 폭주에 따른 것으로 은행 측은 보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농협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 일부 거래가 평소에 비해 시간이 걸렸다. 이에 따라 오전 9시20분부터 오후 1시10분까지 약 4시간 동안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았다.

농협은행 측은 "설 연휴가 끝난 뒤 고객들의 접속이 몰리면서 인터넷뱅킹 일부 거래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e금융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서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뱅킹 등 전자금융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밀려있었던 금융거래가 이날 한꺼번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정상화 됐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뉴스 & 뉴스



향긋한 '봄나물 삼총사'
3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봄동, 달래, 냉이 등 다양한 봄나물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봄나물 특집전'을 열어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전 점포에서 다양한 봄나물을 시세보다 최대 2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연합뉴스

산은 수석부행장에 류희경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에 류희경 전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이 사실상 확정됐다.

산업은행은 3일 오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고 류 전 부행장을 수석부행장으로 공식 선임하기로 했다. 류 신임 수석부행장은 경성고와 성균관대 산업심리학과를 졸업했으며, 1983년 산업은행에 입행했다. /김민지기자

금융사랑방버스 251회 운행

●금감원은 금융사랑방버스가 출범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6개월간 총 251회 운행해 5553명에게 금융 상담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주당 평균 3.5회 운행했으며 회당 평균 22.1명을 상담한 셈이다.

금융사랑방버스는 생계활동에 바쁜 소외지역의 서민을 직접 찾아가 금융 민원 상담, 서민 금융 지원, 불법 금융거래 피해 접수, 금융교육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상담 내용으로는 저소득층의 서민대출 상담이 1865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은행이자 감면, 전환대출 등 제도권 금융 이용에 대한 상담 1784건, 개인 회생 및 파산 상담 124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혜인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美테이퍼링 확대, 한국에 불똥?

신흥국 증시서 자금 유출 러시에 "국내 수출 악영향" "악재 아니다" 분분

설 연휴 기간 중 단행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추가 축소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테이퍼링이 신흥국은 물론 전 세계에 금융 쇼크를 줄 수 있다는 우려부터 미국발 양적완화 축소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낙관론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도 "파장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연준이 지난달 말 양적완화 추가 축소를 단행하자 신흥국에서는 자금 유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지난달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총 122억 달러(약 13조784억원)가 빠져나갔다"고 2일 보도했다.

유출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초에는 13억1800만 달러가 유출됐지만 마지막 주에는 63억 달러가 신흥국 시장에서 이탈했다.

◆"세계 경제 회복세에 찬물"

이로 인해 회복세를 타고 있는 세계경제가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액에서 중국·러시아·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멕시코·이집트·터키·우즈베키스탄·브라질 등 10개 신흥국 비중이 4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전문가들은 "위기에 취약한 신흥국들이 쓰러지면 국내 수출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정부 당국도 이번 결정으로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확대될 경우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등 금융 불안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예측된 정도이고, 미국 경기의 회복세를 전제하는 만큼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도 "최근 며칠 동안 신흥시장 금융 불안은 연준의 추가 테이퍼링을 선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큰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마그네틱 현금카드로 인출 안 됩니다 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은행 자동화기기(ATM) 앞에 마그네틱(MS) 카드를 통한 거래 제한과 관련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금융감독원은 마그네틱 현금카드를 이용한 자동화기기 현금 인출을 이날부터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다. 마그네틱 신용카드와 마그네틱 체크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 및 신용구매 거래는 내년 1월부터 제한된다. /연합뉴스

텔레마케팅 편법 영업 당국, 강력단속 하기로

금융 당국은 금융사 텔레마케팅에 대한 중지 조치 후 일부 금융사의 편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금융 당국은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후 개인정보 불법 유통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3월까지 온라인 보험사를 제외한 금융사의 비대면 영업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 당국의 감시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편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어 3일부터 이런 행위들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또 이번 영업중지 조치가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막기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는 이 조치는 제재를 하기 전 미리 금융사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고 제재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텔레마케팅에 사용된 경우가 발생하면 텔레마케팅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금융 당국은 영업 중지 기간동안 금융 당국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보험대리점, 외주 콜센터의 인력 부당 해고 등 텔레마케터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사에 고용 유지를 촉구하고 최소 임금 보전 등도 유도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사무처장은 "텔레마케터들의 고용에 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해외펀드' 환헤지 할까 환차익 볼까

각국 환율 급변에 투자자 고민…"기본자산 전망 우선"

신흥국 금융 불안에 각국 통화 가치가 급변하면서 해외 주식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도 환율 고민에 휩싸였다.

보통 증권사에서는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환헤지형 가입을 권한다. 다만 통화 가치가 절상 추세에 있는 나라에 환노출형으로 투자할 경우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환차익을 노릴 수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와 대신증권에 따르면 해외 펀드에 대해 해당 금융상품의 투자국의 통화가 약세를 보인다면 환헤지형을 선택하는 쪽이 유리했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수익률 집계를 보면 설정액 10억원 이상 해외 주식형펀드 전체의 최근 6개월 수익률은 3% 성과를 냈고 3개월 수익률은 −2.92%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해외주식형펀드 환헤지형만 따져보면 6개월엔 2.46% 수익을 기록했고 3개월엔 2.90% 빠졌다. 환헤지형은 펀드 수익이 덜 나는 측면이 있지만 손실 국면에서는 소폭 완충 효과를 낸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환율보다 기본 자산가치 전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진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약세가 전망되는 통화 자산에 투자할 때 환헤지를 하는 편이 좋다"면서 "그러나 환율 변동폭이 좁은 편이며 비용 문제 등이 있으므로 환헤지의 장점이 적다면 기초자산 전망을 따져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국민보다 당황한 금융위 'TM금지' 무리수

issue&view
'카드대란' 정부 대응책 안이

/박정원기자 pjw89@metroseoul.co.kr

카드정보 유출 사태가 촉발된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당사자들인 KB국민, 롯데, NH농협카드 등 카드업계는 물론 정부와 전 금융권을 포함한 온 나라가 카드 사태 때문에 들썩였다.

한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카드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조회 건수는 카드 3사 정보 유출 발표 직후인 지난달 19일 349만 건 수준이었으나 정부 종합대책 발표가 있던 1월 22일 이후 급격히 감소했고 명절 연휴 직전인 1월 29일 조회 건수는 9만 건으로 첫날 대비 2.8% 수준으로 떨어졌다.

해지, 재발급도 1월 22일 해지 41만 건, 재발급 68만 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 추세를 지속해 1월 29일 기준 해지 신청은 12만건, 재발급 신청 18만 건 수준으로, 유출 조회 건수 감소와 함께 사실상 진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사안이 이렇게 커지리라 예상치 못했던 금융 당국은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거쳐 대응안을 마련하면서 다소 무리수를 두는 정책도 내놓았다.

대표적인 예가 텔레마케팅 전면금지 조치다. 개인정보가 유출돼 팔려나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번 정보 유출과는 아무 상관없는 텔레마케터(TMR)들의 생존권마저 침해를 한 것이다.

◆금융당국 내부서도 엇갈린 반응

이 조치는 금융 당국 내부에서조차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할 정도로 논란이 됐다. 워낙 급작스러운 사태라 아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지만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뇌관과도 같다.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미 통상 마찰까지는 안 가더라도 TMR들이 손배소를 청구할 경우 금융위가 마땅히 내놓을 카드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여기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은 물론 금융사 직원들은 카드 사태를 해결하느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설 명절 연휴도 반납한 채 출근해 일을 해야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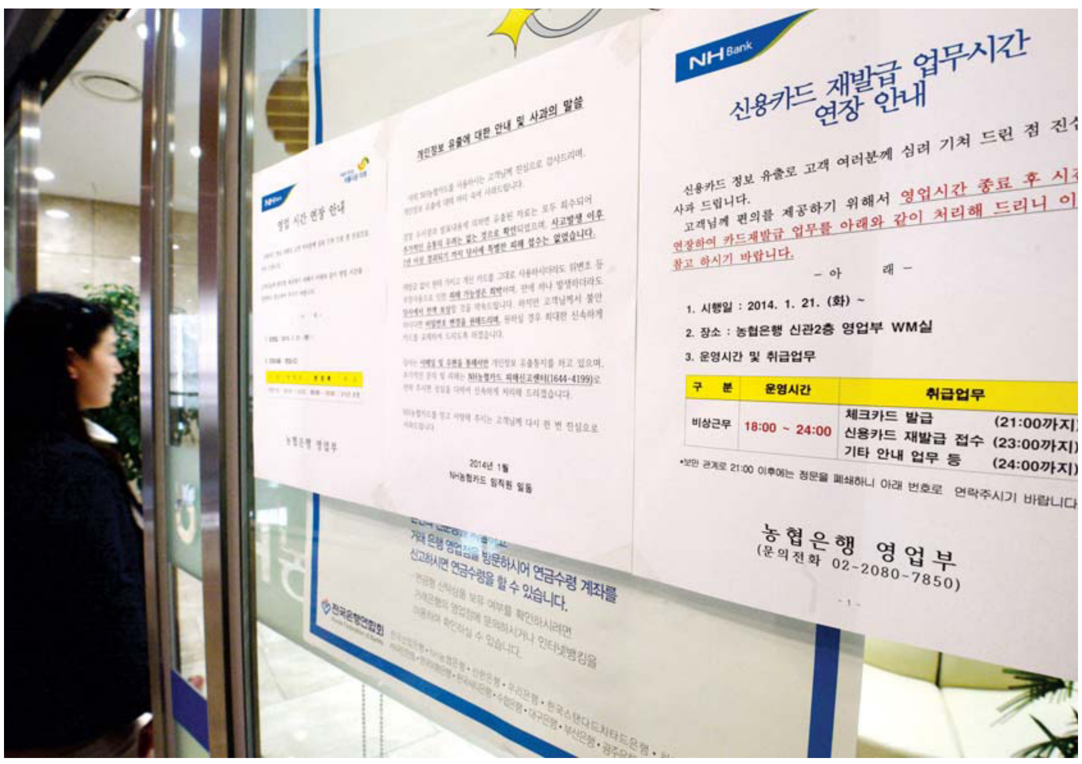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부 부서 직원들은 동양 사태부터 시작해 연이어 일이 터지는 바람에 주말이 없는 생활을 해오고 있다"며 "사안이 장기화되다 보니 이제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아직 카드사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 조치도 남아있고 다른 금융권에 대한 검사도 진행되고 있어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이 마무리된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향후를 대비해야 할 때다. 잘못에 대해 엄한 판단을 내리되 섣부른 결정으로 또 다른 피해를 만들어서는 곤란하다.

정부와 금융 당국,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도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한 3개 카드사의 카드 해지 및 재발급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없도록 카드사를 지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임을 간접적으로 피력했다.



17일부터 농협·롯데·국민카드 3개월 영업정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3개월 영업정지' 결정을 공식 전달한 3일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농협은행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 같은 결정은 카드사들의 10일간 소명 절차를 거쳐 14일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한 뒤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신규 가입과 대출 업무뿐 아니라 카드슈랑스(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 여행업 등 부대 업무까지 전면 금지된다. /뉴시스

'코스피 고점' 내려잡는 증권사들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시즌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증권사들이 코스피 전망치에 대한 눈높이를 앞다퉈 낮추기 시작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상당수가 상장사들의 실적 부진을 반영해 2월 코스피 예상 등락범위를 지난달보다 하향조정했다. 올해 안에 코스피가 고점에 도달할 예상 시점도 당초보다 미뤘다.

교보증권은 이달 코스피 전망치를 1880~1990으로 1월 1950~2100보다 상단, 하단 모두 낮췄다.

KDB대우증권도 1900~2030으로 1월(1950~2100) 대비 하향조정됐고 NH농협증권 역시 2월 1900~2030으로 1월 1930~2070보다 소폭 낮아졌다.

일부 증권사는 연간 코스피 등락 예상범위를 아예 통째로 변경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기존 1850~2320에서 1800~2200으로 낮추고 연중 고점 기록 시점을 오는 4분기로 지연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외부인·퇴직직원도 보는 보험가입자 신상

푸르덴셜생명·삼성화재 등 고객정보 관리 도넘은 부실

주요 보험사들도 고객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푸르덴셜생명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외부인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가 가능한 권한을 부여해 개인 신용정보를 열람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 푸르덴셜생명은 2012년 1월 12일~8월 22일에 외부감사자에게 사내 전산망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51명의 개인 신용정보가 담긴 전산 화면을 총 66회 제공했다.

고객정보 관리 부실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정보 현황을 검사한 결과, 승인 범위를 초과하거나 부주의하게 보험정보를 관리·활용한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개인 보험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보험개발원은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다 기관주의에 직원 7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손보협회는 2010년 10월부터 가계성 정액담보조회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위험 등급, 직업·직종, 모집자 정보 등 10종의 보험 계약정보를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활용하다 발각됐다.

이 밖에 삼성화재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접속 시 공인인증서 등 별도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해 퇴직 직원이 재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4293회나 고객정보를 조회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정보에는 질병, 수술 내역, 사고 현황 등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다"며 "외부로 유출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삼성전자의 '소치 동계올림픽' 마케팅 광고 한 장면. /삼성전자 제공

빙상 금광 뚫는 삼성·대한항공

'썰매' 미는 대우·롯데 등 재계 동계 스포츠 지원 열기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기업의 경우 한국 선수단이 출전한 13개 전 종목에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지난 1997년부터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사로,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등 빙상 종목 전반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꿈나무대회 개최, 국제대회 참가 지원, 외국인 코치 영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선수 저변 확대에 노력 중이다.

대한항공은 2011년 3월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실업팀을 처음으로 창단해 소속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 팀 연고지를 겨울 스포츠 불모지 제주도로 정해 제주도의 동계 스포츠 확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빙상 연맹의 공식 후원사인 KB국민은행은 피겨 여왕 김연아를 주니어 유망주 시절부터 발굴·지원했고, 김해진 등 새로운 유망주 육성에도 적극적이다.

이번 올림픽에서 역대 최대인 20명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썰매 종목, 올림픽에 최초로 출전하는 컬링에도 기업의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과 후원계약을 맺고, 2018년까지 훈련비 및 썰매 구입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도 썰매 종목 후원에 적극적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달 9일 루지 국가대표팀을 초청해 '소치 동계올림픽' 출정식 및 메달 기원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신세계는 컬링 강국 도약을 지원한다. 신세계는 대한컬링경기연맹에 2018년까지 100억원 상당의 후원을 약속했다. 지난해에는 '제1회 신세계·이마트 전국컬링대회'를 개최했다.

CJ는 대한스키협회 설립 이후 최초의 기업 후원사다. CJ는 한국 스노보드 선수 최초로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김호준(스노보드 하프파이프)과 아시아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5위에 입상한 최재우(프리스타일 모굴스키) 등 유망주에게 2015년까지 후원금과 용품 등을 지원한다.

/김태균기자 ksgit@

고학력 백수 300만 돌파

청년 구직난·대졸 은퇴자 증가 겹쳐 전년비 3.2% 늘어

일도 하지 않고 구직도 하지 않는 고학력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심각한 청년 구직난에 고학력 은퇴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307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98만3000명)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전문대 졸업자는 100만8000명으로 2012년(99만6000명)보다 1.2%,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자는 207만1000명으로 전년(198만7000명)보다 4.2%가 각각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159만2000명(전문대졸 48만6000명, 대학교졸 이상 110만7000명)에서 1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9년 10%, 2005년 15% 선을 각각 돌파하고 지난해에는 18.98%까지 상승했다. 비경제활동인구 10명 중 2명꼴이다.

이런 증가에는 고학력화의 영향이 컸다.

대학(전문대 포함) 진학률은 1990년대 초반까지 30%대에 머물다가 1995~96년 50%대, 1997~2000년 60%대, 2001~2003년 70%대에 이어 2004년부터 80%대로 올라섰다.

학력 인플레가 심해지면서 고학력 취업자도 늘고 있다.

대졸 이상 취업자는 2000년 520만 명대였으나 2012년 10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55만9000명으로 불어났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42.12%에 해당한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소치올림픽, 큰 화면으로 보세요" 3일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대형 TV를 선보이고 있다.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둔 가운데 이마트 측은 오는 26일까지 특설 TV 행사 매장을 구성해 품목별로 최대 10% 할인 및 사은품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1월 국산차 실적보니 기아차만 울상

지난 1월 국내 자동차 판매 현황 집계 결과 현대차와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가 상승세를 보인 반면 기아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신형 제네시스와 그랜저, 싼타페, 투싼ix가 효자 노릇을 했다. 신형 제네시스는 3728대가 판매돼 올해 연간 목표인 3만2000대 달성이 무난할 전망이다. 그랜저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1156대 더해지며 8134대를 기록, 내수 1위에 올랐다. 반면 쏘나타 하이브리드 모델은 486대로 전년 대비 53.8%가 줄었다.

한국GM은 스파크를 제외한 모든 차종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전년 동월 대비 8.4%가 증가했다. 특히 크루즈와 캡티바, 올란도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르노삼성은 SM5를 제외한 모든 차종의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QM5는 603대가 판매돼 133.7%의 증가율을 보였고 SM7도 69.9%나 늘어났다.

쌍용차의 내수는 코란도 삼총사가 살렸다. 코란도 스포츠는 2150대, 코란도 C는 1580대, 코란도 투리스모는 807대가 판매됐다.

기아차는 경차 '레이'를 제외하고 모든 승용차가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K9(-40.0%), K7(-27.5%), 프라이드(-21.1%)가 부진했다.

/임의택기자 ferrari5@



HNT 하나투어리스트
마케팅팀장
"고객들에게 최저가를 제대로 홍보하라! 최저가 아니면 300%를 보상한다"
자유여행을 가장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
하나 Free
자유여행만들기 항공+호텔
호텔팀장
"고객이 원하는 호텔은 어떤 호텔이든, 믿을 수 있는 최저가격에 제공하라~"
최저가 300%
보상제실시
항공팀장
"최고의 항공과 최저가격을 찾아라!"
MISSION
3인에게 주어진 지상최대의 미션,
자유여행 최저가를 확보하라!
기간 : 2013년 11월 11일~2014년 2월 28일
자유여행 어디서 예약 할까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다구요?
하나 Free 〈자유여행만들기〉
항공 + 호텔에서
1 손쉽게 한 번 검색으로
2 항공과 호텔에 현지투어, 패스, 입장권까지 한꺼번에
3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하세요!
이벤트
최저가 보상제
하나투어 항공+호텔의 자유여행만들기로 구매한 가격과 타사의 가격을 비교하여 차액발생시, 차액의 300%마일리지보상
최저가 가격비교 방법
하나투어 '항공+호텔'의 자유여행만들기로 항공과 호텔을 통합구매한 가격과 타사의 '동일조건'상품 구매시 차액확인
※ 자세한 사항은 하나투어 홈페이지로 참조해주세요.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566-0223
www.hanatourist.com
상기상품은 (주)하나투어에서 각각의 공급처에서 제공받아 알선/판매합니다. 항공기,열차표,입장권,숙박권 등은 해당 공급자의 판매규정에 따라서 취소위약금 등이 발생되오니 예약 및 구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1 (주)하나투어 ■하나투어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 26004-1993-6(종로구청)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하나투어리스트 : 일반여행업 등록 2002-3호(서울시 종로구청) /영업 보증보험 5억 5천만원 가입 ■고객 칭찬/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공공기관 본사 부지 7조원 매물 나온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84%에 달하는 시가 7조원 이상의 공공기관 본사 부지가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

매각 대상인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본사 부지 중에는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사옥(사진) 등 장부가 1000억원 상당의 부지만 11곳에 달해 매각 방법 및 매입 주체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민주당 의원에게 3일 제출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전 부동산 매각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본사 지방 이전에 따라 기존 본사 부지를 매각 중이거나 매각 예정인 공공기관은 총 51곳으로 매각 대상 부지는 54곳 246만4057㎡에 달한다.

매각 대상 부지 전체 규모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84%에 달하는 수준이며 건물 연면적은 99만 7880㎡다.

각 공공기관이 계산한 매각 대상 부지의 장부 가격은 총 5조7101억원이다. 일반적으로 시가의 80%가량을 장부 가격으로 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부지의 시가는 최소 7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유주영기자 boa@

임시국회 눈치보는 삼성전자·KT

단통법·방송법 및 IPTV 개정안 통과 될 경우 두 기업 타격 클듯

2월 임시국회가 3일부터 본격 시작된 가운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과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개선을 위한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 대상을 이동통신사에서 제조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 시 ▲이용자 차별 해소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 지원 ▲유통시장 건전화 등을 통해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의 불법·편법 영업 행위를 방지하고 이통사와 제조사의 투명한 보조금·장려금을 기반으로 시장 경쟁 체제를 이끌어 단말기 출고가도 순차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으로 케이블 방송사업자(SO)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한도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3분의 1'로 각각 같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및 IPTV법 개정안의 향방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방송법에 따라 케이블 SO는 시장 가구 수(약 1500만 명)의 3분의 1과 전체 방송권역 77개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었으며, IPTV법은 1개 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약 2500만 명)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위성방송의 경우 점유율 제한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 시 타격을 입는 것은 현재 IPTV와 위성방송을 유일하게 함께 서비스하고 있는 KT다. KT의 현재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하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27.1%에 달한다.

이 때문에 방송법 개정안은 KT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통법은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정치적 상황도 좋지 못해 단통법과 방송법 개정안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 역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6월 지방선거마저 앞두고 있어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민생법안 통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이뤄지지 못한다면 분위기로 볼 때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만을 바라며 기대고 있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파리바게뜨, 꽃과 초콜릿으로 사랑 전해요 파리바게뜨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점에서 다양한 밸런타인데이 기념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음성 댓글 다는 기술 개발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스마트폰의 쓰임새가 더욱 다양해진다.

포털 다음은 국내 최초로 모바일 음성 인식 응용프로그램 개발 인터페이스(API)를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음성 인식 API는 스마트폰에서 한국어 음성을 인식한 후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는 기능으로, 앱 개발자들이 모바일 앱에서 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의 음성 인식 API는 2012년 말 다음이 인수한 음성 인식 전문기업 '다이알로이드'의 기술로 제작됐다. 이 기술은 단순한 키워드 인식을 넘어 연속 문장에 있어서도 높은 음성 인식률을 자랑한다.

이 기술은 현재 KT의 음성 인식 큐레이션 서비스인 '매직보이스'와 다음 앱에서 음성으로 간편하게 뉴스 댓글을 남길 수 있는 '음성 댓글' 서비스에 적용돼 있다. 그리고 이 API는 모바일 라이브러리 형태로 지원돼 안드로이드 및 iOS용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제공해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 앱 개발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zen@

구글 3년 연속 '입사 희망 외국계 기업' 1위

구글코리아가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 순위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캠퍼스 잡앤조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30일부터 보름간 20~30대 구직자 18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0.7%(복수 응답)가 구글코리아를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으로 뽑았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애플코리아(18.9%), 스타벅스커피코리아(16.2%), BMW코리아(14.8%), 유한킴벌리(14.6%)가 상위 5위권을 형성했다. /이국명기자 kmlee@

의료관광 연계 안정적 임대수익 '쏠쏠'

분양돋보기

■ JK 라마다 앙코르 제주 호텔

공항서 차로 5분 거리 분양가 1억5000만원대

치열해진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상품의 차별화가 한창인 가운데, 제주 시내 최초로 의료관광과 연계한 분양형 호텔 '라마다 제주'가 눈길을 끈다.

의료관광 시장은 최근 해외 환자의 급증과 함께 블루오션으로 손꼽히는 영역이다. 지난 2009년 정부가 의료관광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산정한 이래, 3년 만에 건강 관련 여행(의료관광) 수입이 1억 달러를 돌파했을 정도다.

1억 달러 기록은 1년 만에 또다시 갱신, 한국은행이 집계한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작년 의료관광 수입은 2억680만 달러에 이른다. 전년보다 39.3% 증가한 규모로 '라마다 제주'가 블루오션 시장을 선점할지 기대된다.

제주도 제주시 연동 270-2번지 일대에 공급되는 라마다 제주 호텔은 지하 3층~지상 12층, 1개 동, 전체 225실 규모다. 전용면적 19.43~22.68㎡로 구성된 디럭스 5개 타입과 30.03~50.03㎡로 이뤄진 스위트 4개 타입으로 설계됐다.



'라마다 제주 호텔' 디럭스 내부.

◆ JK메디컬그룹 시행… 성형·관광 패키지

사업 시행은 JK성형외과가 대주주로 있는 JK메디컬그룹에서 맡았다. JK성형외과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인증한 해외 환자 유치 의료기관 1호로서 2011년부터 3년 연속 해외환자 유치부문 최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정욱 라마다 제주 분양팀장은 "성형을 하러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제주 관광 패키지 상품을 제공, 호텔 가동률을 높일 예정"이라며 "JK성형외과를 찾는 해외 환자들이 많은 만큼 기본적인 수요 확보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제주국제공항이 차로 5분 이내 거리고 종합시외버스터미널, 바오젠거리,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예정), 동문시장, 제주도청 등 행정·편의시설과도 가깝다.

모델하우스는 지난 1월 27일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 분양에 들어간 이래 매일 100여 명씩 방문하고 있다.

모델하우스에서 만난 한 방문객은 "제주에서 분양하는 호텔은 많지만 라마다 앙코르 제주는 시행사가 탄탄하고 의료관광과 연계돼 안정적이라는 소문을 듣고 왔다"며 "라마다 호텔만의 매뉴얼에 따라 깔끔하게 꾸며진 객실도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견본주택 내 마련된 디럭스, 스위트 2개 타입의 유닛은 향후 공급될 호텔 내부를 그대로 재현했다.

◆ 가동 첫해 확정 수익 지급

분양가는 공급 호수가 가장 많은 D타입 기준으로 1억5000만~1억6000만원대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 조건 등을 감안할 때 실투자금은 7500만~8000만원 수준이다. 가동 첫해 실투자금 기준 11%의 확정 수익을 지급하고, 준공 이후 담보대출 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금리 5%)도 지원한다.

서울지하철 7호선 논현역 3번 출구 인근에 마련됐다. 준공은 2016년 2월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pso9820@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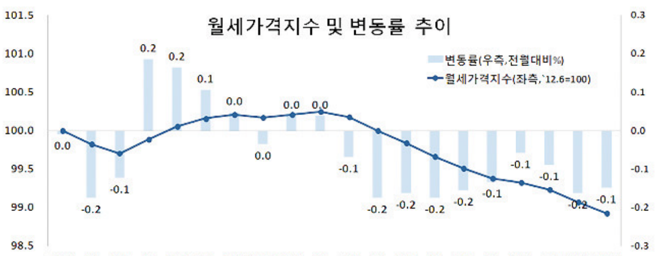
뚝뚝 떨어지는 월세… 10개월 연속 하락

월세 전환 물량의 꾸준한 증가와는 달리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월세 가격이 약세를 나타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8개 시·도 월세 가격이 전월 대비 0.1% 내려 10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3일 밝혔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지역 모두 0.2%씩 하락했다. 이 중 서울 강북(-0.1%)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신규 수요가 발생했으나 계절적인 영향으로 하락세가 유지됐고, 강남(-0.4%)은 임대인의 월세 선호와 임차인의 전세 선호로 인한 수급 불균형으로 내림폭이 컸다.

수도권 0.2%↓… 오피스텔 낙폭 가장 커



지방광역시는 보합세를 보였으나 대구(0.1%)는 혁신도시 이주 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소폭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부산·광주는 보합, 대전·울산은 각각 0.2%, 0.1%씩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0.3%로 낙폭이 가장 깊었다. 이어 연립·다세대(-0.2%), 아파트(-0.2%), 단독주택(-0.1%) 순으로 내렸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단독주택(-0.2%)을 제외하고는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아파트 모두 0.3%씩 빠졌고, 지방에서는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은 0.1%씩 내렸지만 연립·다세대와 아파트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월세 이율은 8개 시·도가 0.80%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는 0.79%와 0.84%로 전달과 같았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전달보다 0.01%포인트 내린 0.75%를 기록한 가운데, 강남 11개 구가 0.73%로 가장 낮았다.

/박선옥기자

신내동에 의료안심주택 222가구 공급

전국 처음… 이달 중 착공 긴급구조 가능 시스템 구축

입주민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 응급 상황 시 자동으로 관리사무실로 연결되는 전국 최초의 '의료안심주택'이 이달 첫 삽을 뜬다.

서울시는 중랑구 신내동 서울의료원 건너편에 의료안심주택 222가구를 이달 착공, 내년 2월 입주자 모집 공고 후 5월 입주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첫 의료안심주택은 지하 1층~지상 7층, 2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18㎡ 92가구 ▲29㎡ 130가구로 이뤄진다.

주택은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하는 생활리듬체크시스템 ▲무장애(barrier free) 공간 ▲케어센터 ▲커뮤니티존 ▲텃밭·양봉장 등을 갖춘 옥상 등 계획 단계부터 입주민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 가운데 생활리듬체크시스템은 집 안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달아 입주자가 일정 시간 현관문이나 화장실 등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관리사무실로 연락되는 체계다. 이를 통해 홀로 거주하는 의료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욕실에는 응급 상황 시 비상벨을 누르면 관리사무소로 연결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필요에 따라 서울의료원이나 119센터 등으로 바로 연계해주는 '양방향 안전시스템'도 도입된다.

또 집 안팎을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 집 밖에서 단지를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단차를 없애고 복도 폭을 2.1m까지 넓혀 양방향으로 휠체어가 다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 1층과 2층, 옥상으로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케어센터, 복지시설, 공동 텃밭 등을 조성한다. 특히 옥상에는 입주민들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유기농 텃밭과 양봉장을 조성, 향후 이곳에서 생산한 채소와 꿀을 판매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박선옥기자



삼성물산이 새롭게 선보인 '동서남북 테라스 하우스' 디자인이 적용된 아파트 저층부 이미지.

단독 장점 그대로 살린 '동서남북 테라스 하우스'

단독주택의 장점을 그대로 적용한 아파트가 등장한다.

삼성물산(대표 최치훈)은 '동서남북 테라스 하우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아파트 디자인을 선보이고 이르면 올해 분양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저층부 아파트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총 9개의 디자인 신개념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기존 테라스 하우스가 전면에 만 테라스를 뒀다면 동서남북 테라스는 정면, 뒷면, 측면에 개별 테라스를 두고 용도에 맞는 외부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면 테라스는 텃밭·원예, 측면 테라스는 운동·휴식, 뒷면 테라스는 취미·조리 활동에 유용할 전망이다.

또 1층 세대에 복층 구조로 지하층을 주고 지하 연결 통로를 통해 전용 주차공간 및 마당으로 연결되는 독립 동선을 제공,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 같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박선옥기자



SKT '무제한 데이터 로밍' 123개국으로 확대 SK텔레콤이 해외에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원패스(One Pass)' 제공 국가를 12개국 확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SK텔레콤 고객들은 123개국에서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SK텔레콤 제공

쓸수록 돈 되는 리워드 앱

미션 참여 땐 실제 쓸 수 있는 포인트 보상…'포인트 락커' '도니캐시' 등 인기

설 연휴 지출을 메워주는 '리워드 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리워드 앱은 이용자가 광고 시청 등의 미션에 참여하면 누적 횟수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보상해주는 앱이다.

CJ의 리워드 앱 '포인트 락커'는 온라인 콘텐츠와 광고를 볼 때마다 '게이지'를 적립해준다. 콘텐츠에 댓글을 달면 4%, 앱에서 제공하는 광고나 뉴스 '바로 가기' 기능을 사용하면 2%, '슬라이드' 이용 시 1%의 게이지가 쌓이는 형식이다. 포인트 락커에 누적된 게이지가 100%에 도달하면 CJ그룹의 마일리지인 원(ONE) 포인트가 최소 100포인트에서 최대 5만 포인트까지 무작위로 지급된다. 원 포인트는 CJ 쿠폰몰에서 즉시 사용 가능하다. 다만 현재는 앱 출시 당시에 비해 게이지 누적 횟수가 줄어드는 등 포인트 사용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아이폰에서는 내려받기가 어려운 것도 단점이다.



G마켓과 옥션에서 운영하는 리워드 앱 '도니캐시'는 탄탄한 유통망 속에서 급성장 중이다. 도니캐시는 이용자가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추천 아이템을 볼 경우 '돈'이란 포인트를 지급해 옥션과 G마켓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측 투표 이벤트인 '미래찍기' 코너는 최근 포털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어느 이용자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인기 웹툰 '노블레스'가 있을까?'란 글을 올리자 참여자들이 포인트를 받기 위해 노블레스를 키워드 검색한 것이다. 여론몰이란 지적도 있었으나 앱 홍보에 큰 효과를 봤다.

또 다른 리워드 앱 '미션피플'은 OX 퀴즈나 타자 미션에 참여하면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미션피플'은 싸이월드와 네이트온을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임직원이 모여 만든 앱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아직 출시 초기 단계라 안정적인 운영 능력 입증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 리워드 앱 원조인 앱디스코의 '애드라떼'는 하향세다. 한때 '돈 버는 앱'으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포인트 환급 지연 및 교환 상품 부족으로 회원 이탈을 겪고 있다. 1일 환급 신청 인원 제한 정책도 논란을 불렀다. 애드라떼는 대기업에서 만들어져 유통망이 탄탄한 후발 리워드 앱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카톡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 혁신 앱 최종 후보에

카카오톡이 '가장 혁신적인 모바일 앱' 최종 후보에 올랐다.

카카오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업자 연합체 GSMA 주관으로 진행되는 제19회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에서 자사가 서비스하는 카카오톡이 '가장 혁신적인 모바일 앱' 부문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톡은 선물 시스템, 이모티콘 스토어, 모바일 소셜 게임 플랫폼 등을 모바일 메신저 처음으로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최종 수상자는 25일 스페인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4'에서 발표된다. /장윤희기자

허리·목 디스크 10분 고주파내시경 레이저로 끝!

기존 고주파 시술에서 진화…재발·터진 디스크·퇴행성 협착증도 치료 가능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 이승주(오른쪽) 원장과 가수 휘성. /강남초이스병원 제공

최근 '불후의 명곡' 및 '히든싱어' 우승으로 화제가 된 국내 최고 보컬 가수 휘성은 군 복무 중 악화된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제대 후 방송 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휘성은 방송 활동을 다시 해야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강해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을 내원하게 됐다.

담당 주치의인 이승주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 원장은 휘성의 상태를 제4~5요추 추간판 탈출증 말기 및 재발로 진단했다. 진단 후 이 원장은 국소마취하에 병변 부위에 직경이 작은 미세 특수 내시경을 정확히 위치시킨 후 10여 분간 고주파 디스크 치료술을 시행했다. 시술 후 탈출된 추간판은 수축되면서 제자리를 찾았고 통증은 호전돼 휘성은 시술 당일 퇴원할 수 있었다.

휘성은 곧바로 방송 활동에 복귀했으며 현재는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을 만큼 회복된 상태에서 활발한 방송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 가수 휘성 시술 직후에는 유명 배우 K씨도 휘성과 비슷한 증상으로 강남초이스병원을 내원해 고주파 디스크 치료를 받았다. 치료 후 K씨도 증상이 호전돼 현재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에서 시행하는 고주파 특수 내시경 디스크 치료술은 기존의 일반 고주파 디스크 치료와는 다른 진화된 치료법으로 직경이 작은 특수 내시경을 이용해 일반적인 디스크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터진 디스크, 또는 퇴행성 협착증까지 치료가 가능한 비수술적 치료법이다.

◆성인병·노인 환자 등 수술이 어려운 환자도 강남초이스에서는 치료 가능해

이와 함께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은 수술을 두려워하는 환자나 고혈압·당뇨병·골다공증·노인 환자도 시술받을 수 있는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도 시행하고 있다. 이 시술은 국소마취한 후 1.5mm 굵기의 관으로 내시경을 병변 부위에 집어넣어 환부를 의사가 직접 들여다보며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고 레이저를 이용해 돌출된 디스크 부위의 염증을 제거하는 시술이다. 내시경으로 병변의 염증을 볼 수 있어 작은 병변까지 제거가 가능하고 부분 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고령자나 만성질환자와 같이 수술이 힘든 환자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더욱이 수많은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세계인들이 주로 찾아 이름이 알려진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은 경막외 신경 치료술, 고주파 디스크 치료,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등 내원 환자의 질환에 맞는 시술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강남초이스병원 여의도점은 질환의 재발을 방지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라 환자 1명을 척추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및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치료 시스템을 구축했다.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 잡은 척추관절과 뼈를 바로잡아 눌린 신경의 압박과 통증을 해소하는 도수치료,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 감압치료, 디스크로 약화된 관절과 근육 등을 강화시키는 운동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문의: 서울대입구역 본원 02)875-2200·여의도점 02)786-2200·홍대점 02)336-2200 /황재용기자

계단걷기 통증 땐 초기…O자 변형 땐 말기

퇴행성관절염 증상 및 단계별 적절한 치료법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인 질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퇴행성관절염이다.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8명이 앓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 최근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환자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식들과 따로 살다 보니 자식들이 부모의 질환 발병 사실을 초기에 알아차리기 어렵고 부모들 역시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질환을 숨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행성관절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해야

퇴행성관절염은 흔한 질환이지만 제때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힘들 뿐만 아니라 심하면 우울증까지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체 변형이나 걸음걸이, 통증으로 무의식 중에 내뱉는 소리가 있다면 퇴행성관절염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 사물을 잡거나 기대고 일어나는 경우 ▲오래 걷지 못하고 움직임이 둔하며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 ▲다리 모양이 O자형으로 휘거나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이는 경우 ▲무릎 관절 주위를 자주 만지거나 무릎이 자주 붓는 경우 등이 퇴행성관절염에 해당된다.

퇴행성관절염은 연골의 손상 정도와 증상에 따라 치료법이 나뉘는데 우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프다면 초기, 자리에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양반다리를 하다 자세를 바꿀 때 무릎 안쪽에 통증이 있다면 중기로 볼 수 있다. 또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진 상태인 말기는 걸을 때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다리 모양이 O자형으로 변형되는 특징이 있다.

초기에는 물리치료나 약물요법, 운동치료 등으로 질환을 치료할 수 있으며 중기에도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데 관절내시경을 통해 연골 손상 정도를 파악한 후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말기 환자의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최선의 치료법이다. 손상돼 없어진 무릎 연골 대신 인공관절을 넣어 통증을 없애고 운동 범위를 확보하는 수술로 최근에는 70~80대의 고령층 환자의 인공관절 수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송상호 웰튼병원 원장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행동과 신체 변화 등을 세심하게 체크해 관절염을 조기에 발견·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굽 높은 롱부츠 위 척추 휘청

관절질환 유발하는 신발들



겨울철이면 허리 및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젊은 여성들이 늘어난다. 추운 날씨에도 멋을 위해 선택한 롱부츠·어그부츠·하이힐 등이 관절에 이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먼저 굽이 6cm 이상인 롱부츠를 즐겨 신는 여성들의 경우는 앞쪽으로 쏠리는 자세로 인해 골반이 틀어지기 쉽다. 골반이 틀어지면서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척추가 전체적으로 틀어지는 척추전만증이 생길 수 있다.

하이힐을 신을 때는 엄지발가락이 휘는 무지외반증을 조심해야 한다. 선천적인 평발이나 발볼이 넓은 사람에게 쉽게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볼이 좁고 굽이 높은 하이힐 착용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하이힐을 자주 신어 증상이 심해지면 무릎관절염이나 허리디스크 등 2차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굽이 낮고 편안한 어그부츠는 족저근막염을 유발할 수 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의 굴곡을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어그부츠라도 쿠션감이 있는 부츠를 신는 것이 질환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또 어그부츠를 신은 날에는 집에 돌아와 발바닥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조보영 연세바른병원 대표원장은 "장시간 하이힐이나 부츠를 신으면 근육과 인대가 굳어지며 특히 종아리를 감싸는 부츠는 혈액순환을 방해해 만성 요통으로 이어지기 쉽다"며 "실내에서는 편안한 신발로 바꿔 신거나 외출 전후에는 족욕이나 스트레칭으로 발과 관절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죽 먹고 반신욕…피로 훌훌

명절 후유증 극복 이렇게



매년 명절 직후 따라다니는 것이 '명절 후유증'이다. 명절 내내 운전과 가사 일로 시달린 이후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신경성 두통부터 소화불량·근육통까지 증상도 다양하며, 명절 이후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해야 하기 때문에 방치 시 다른 질병으로 이어지기 쉽다. 흐트러진 생활 리듬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건강한 명절 보내기' 방법을 알아봤다.

◆과식·과음에 쉴틈 없던 위

사흘간 하루 세 끼를 갈비찜·산적·전·잡채 등 기름진 명절 음식으로 먹게 되면 소화되는 시간이 길어 위에 무리가 간다. 또 위산 분비가 촉진돼 위산 역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위산이 역류하면 식도가 헐거나 염증이 생겨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다. 설에는 평소보다 상 위에 음식을 많이 올려놓아 과식할 가능성이 높다. 갑자기 음식물 섭취가 늘어나면 위가 비정상으로 팽창해 제대로 음식물을 분쇄할 수 없어 소화장애가 일어난다.

소화불량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할 때 천천히 먹어야 하며 칼로리가 낮고 소화가 잘되는 나물이나 채소를 함께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휴 직후에는 기름기가 없고 소화가 잘되는 죽을 먹어 속을 달래는 것도 방법이다. 곡식을 오래 끓여 알갱이를 무르게 한 죽은 소화가 잘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명절 몸살' 마사지·스파로 예방

주부들은 명절 연휴 내내 음식 준비와 상차림에 바쁘다. 명절이 지난 후 긴장이 풀리다 보니 한차례 몸살을 겪는 주부들도 있다. 음식 준비는 물론 집안 어른들을 모시고, 친척과의 관계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명절 직후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반신욕이나 사우나는 생활 리듬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호텔업계에서 설 연휴 직후 벌이는 스파 행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정영일기자

요즘 카페, 별걸 다 파네

상품권·텀블러·카드지갑 등 20~30대 여성고객 겨냥

커피전문점 업계가 커피 마니아들을 위한 실속과 품격을 동시에 갖춘 이색 세트 출시로 분주하다. 홈카페족을 위한 '더치커피' '드립백'에서부터 '기프티콘' '청마 머그컵 텀블러' '카드지갑' '티앤커피메이커'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5만원 내외의 합리적 가격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 특히 프리미엄 커피 대중화 시대를 맞아 커피전문점 상품에 대한 20~30대 여성층의 수요가 커진 것도 한몫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주커피는 최근 '더치커피 세트'를 출시했다. 커피 명산지 최상급 원두인 '케냐AA'와 부드러운 신맛이 특징인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2종으로 구성했다. 청마의 해를 맞아 고급스러운 블랙 패키지에 말 문양을 새겨 넣는 등 특별 제작해 한정 수량만 판매한다.

할리스커피도 한정판 '기프트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을 출시했다. 소비자는 할리스커피 '기프트카드'에 1만원에서 50만원까지 원하는 금액을 충전해 실속 있게 활용 가능하다. 말의 해를 맞아 말·복주머니 등의 아이콘을 새겨 넣은 것이 특징이다.

투썸플레이스는 최상급 콜롬비아 COE원두와 핸드드립 커피 제조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를 담은 '핸드드립 프리미엄 세트'와 핸드드립 커피를 보다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핸드드립 파우치와 투썸 텀블러로 구성한 '텀블러 드립커피 세트' 등을 선보였다.

엔제리너스커피는 오는 15일까지 엔젤 투톤 컬러 머그 2개와 골드하우스 드립백 한 개로 이루어진 소(小)형과 엔젤 투톤 컬러 머그 2개, 금장 로고 에스프레소잔 2개와 콜라보레이션 텀블러·카드지갑 목걸이·골드하우스 드립백 두 개로 이루어진 대(大)형으로 구성된 세트를 판매한다.

탐앤탐스는 커피·스틱파우더·티앤커피메이커 티 등 총 6종 세트를 최근 출시했다. 정상 가격보다 최대 44%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구성돼 실속을 더했다. 가정과 사무실·야외 등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커피와 티·요거트파우더 제품을 비롯해 커피 또는 티를 직접 편리하게 만들어 마실 수 있는 더치커피메이커와 티앤드커피메이커 등을 넣어 기호에 따라 구매가 가능하다.

/정영일기자 prms@metroseoul.co.kr



홈플러스 매장에서 LED 전구 체험해요

3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한 고객이 LED 전구를 살펴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올해부터 백열등 생산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대체 수요 지원 차원에서 LED 전구를 중심으로 총 220여 종의 전구를 선보이고, 139개 전 점포 조명매장도 고객이 구매 전 전구를 직접 시연해볼 수 있는 '체험형 매장'으로 새로 단장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제공

술, 디자인에 한번 더 취하다

하이네켄·롯데주류 와인 등 콜라보 한정판 눈길

최근 주류업계에서 말의 해를 기념해 특별 디자인한 한정판 와인을 비롯해 병의 겉 표면에 UV 잉크를 처리해 화려함을 더하는 등 예술적 감각을 더한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해 눈길을 끈다.

먼저 하이네켄은 UV 조명을 받게 되면 숨겨져 있던 화려한 디자인이 나타나는 '클럽 보틀(Club Bottle)'을 출시한다.



이 제품은 세계적인 그래픽 아티스트 매트 무어(Matt W. Moore)의 독창적인 벡터 펑크 스타일의 디자인을 적용한 혁신적인 제품이다.

'밤의 마술을 선보이다(Unveil the magic of the night)'란 제품 설명이 말해주듯이 병의 겉 표면에 UV 잉크가 특수 처리돼 있다. UV 조명을 받으면 나타나게 되는 평키한 디자인은 병의 표면 전체를 감싸고 있으며, 파란색과 초록색 2가지 색상이 어우러져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게 된다.

또 롯데주류는 디자이너 이영희 씨와 말 박물관으로 유명한 와이너리와 함께한 콜라보레이션 와인 '레 깔레쉬 드 라네쌍(Les Caleches De Lanessan)'을 선보인다.

이 제품은 프랑스 보르도 오메도크 지역에서 생산한 AOC(Appellation d'Origine Controlee)등급의 레드 와인으로 19세기부터 8대에 걸쳐 마구(馬具)와 마차를 수집·전시하며 '말 박물관'으로 유명해진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와이너리 '샤또 라네쌍(Chateau Lanessan)'의 제품을 가지고 만들었다.

특히 한복 디자이너로 잘 알려진 이영희 디자이너가 말을 전통 자개 문양 스타일로 디자인해 와인 라벨에 적용해 와인의 예술적 가치와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2000병 한정 생산을 통해 희소성까지 높인 콜라보레이션 와인이다. /정영일기자

'비빔밥' 퍼포먼스 보며 명절증후군 타파

강강술래 고객 힐링 위해 이달 말까지 티켓 이벤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설 명절 이후 지친 고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돕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힐링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www.sullai.com) 경품 이벤트에서 신청글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요리인 비빔밥을 만드는 과정을 모티브로 아카펠라, 비보잉, 비트박스 등 다채로운 음악과 춤, 액션으로 버무린 넌버벌 퍼포먼스 '비밥' 티켓을 증정한다.



온라인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선 명절증후군 극복을 위한 여행이나 캠핑, 나들이를 떠나는 고객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이벤트도 벌인다.

100% 한우갈빗살로 만든 질질한 우떡갈비(1박스·360g)와 국내산 돼지고기를 70%나 넣은 흑임자한돈너비아니(2박스·720g) 구성의 '힐링세트'는 2만8300원에 40% 할인 판매한다.

면역력을 높이고 기력 보충에 좋으며 방부제·색소·조미료 등을 일절 넣지 않은 100%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mℓ·5팩·15인분)는 3만7800원, 소용량 세트(350mℓ·5팩·10인분)는 2만2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100% 국내산 돼지 등심 부위를 통째로 사용한 통등심돈가스(3박스·2.16kg)는 3만1900원, 100% 자연 치즈를 사용한 모짜렐라돈가스(3박스·2.16kg)는 3만6000원에 판매하며, 영양간식 갈비맛 쇠고기육포(50g·6봉)도 2만5200원에 선보인다.

한편 상계점은 이달 16일, 고양 늘봄농원점은 이달 28일까지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권 상품권(최대 4장)을 증정하는 '새해 복 많이 대잔치'를 벌인다. /정영일기자

겨우내 해충들 '씩' 웃는 집

바퀴벌레·초파리 동사한 줄 아셨죠?…물 많고 따뜻한 주방 곳곳 은신

환기가 쉽지 않은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집 안 청소에 소홀해진다. 하지만 방심한 사이 집 안 구석구석은 각종 해충의 온상이 되기 쉽다. 해충 방제업체 세스코 관계자는 "해충은 겨울에 활동량이 적지만 곳곳에 은신처를 마련해 숨어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평소 물이 많고 따뜻한 구석진 곳 등을 꼼꼼히 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수기 청소로 바퀴벌레 퇴치

정수기가 있다면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바퀴벌레를 주의해야 한다. 내부 모터에서 발생하는 열은 겨울철 바퀴벌레의 서식에 적합한 따뜻한 온도를 맞춰주며, 저수통 내부에 있는 물은 바퀴벌레 생존에 필요한 물을 제공해 준다. 특히 정수기는 구조 특성상 바퀴벌레가 이동 가능한 틈새가 많기 때문에 분기별로 저수통 주변과 정수기 내부 청소를 하는 게 좋다.

가스레인지나 조리대 근처 기름때도 바퀴벌레의 먹잇감이 되므로 바로 닦아내야 한다. 이 밖에 배전판·가스경보기 등 따뜻한 환경을 유지하는 곳이나 깨진 타일 틈새처럼 바퀴벌레가 서식하기 적합한 곳은 수시로 살펴본다.

◆배수구·수채통 깨끗이 비워야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기 쉽고 습한 싱크대 밑 주방 배수구와 배관 역시 해충이 서식하기 가장 좋은 장소다. 싱크대 밑에 쌓인 유기물은 사계절 활동이 왕성한 나방 파리나 초파리 유충에게 최고의 먹이가 된다. 이때는 싱크대 배수구에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섞은 물을 부었다가 30분 후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오염물질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다.

해충 전문가들은 "청소 중 분변 등 해충의 흔적이 나왔다면 이미 상당히 번식했다는 증거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특히 해충이 급속도로 번식하는 봄이 오기 전에 해충 방제를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니트·패딩 자주 빨면 상해요

겨울옷 오래 입는 세탁법

고가의 니트나 패딩 같은 겨울옷은 세탁과 보관에 조금만 신경 쓰면 오랫동안 새옷처럼 입을 수 있다.

3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스웨터, 풀오버 등 겨울에 자주 입는 니트 제품은 되도록 빨지 않아야 오래 입는다.

물과 습기에 민감한 니트는 세탁뿐 아니라 보관을 잘못해도 곰팡이가 피기 쉽다. 따라서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게 가장 좋고, 보관 시에는 탈취제를 뿌려 서늘한 곳에 걸어둬야 옷 손상을 막을 수 있다.

손빨래를 할 때는 울샴푸 같은 중성세제를 약 30도 물에 풀어 30~40분 담가 부드럽게 눌러준다. 세탁 후에는 수건에 말아 물기를 없앤 뒤 바람 부는 그늘에 널어둔다. 보풀은 일회용 면도기나 눈썹 칼로 결을 따라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빤 니트는 옷 사이에 습자지나 신문을 넣어 보관해야 습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오리, 거위 등 동물 털을 충전재로 사용한 패딩은 충전재가 뭉치지 않도록 세탁한다. 드라이클리닝보다는 중성세제나 다운 전용 세제를 이용해 손빨래를 해야 하는데, 벨크로와 지퍼는 반드시 채워야 스크래치가 나지 않는다. 말릴 때는 옷을 뒤집어 바닥에 뉘어서 말리면 된다. 세탁한 패딩은 뭉쳐있는 충전재가 골고루 퍼지도록 손으로 두드린다. /박지원기자



"P&G 제품 사고 유소년 스포츠 지원해요" 3일 오전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열린 '땡큐맘' 캠페인 소비자 이벤트에서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트 복장을 한 어린이 모델들이 P&G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 P&G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땡큐맘'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26일까지 2주간 P&G 제품 매출액의 일부를 대한체육회를 통해 유소년 스포츠 발전을 위해 기부한다. /손진영기자 son@

길 가던 지름신 "반갑다, 화장품 할인"

토니모리·에뛰드 새해 행사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가 잇따라 새해맞이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토니모리는 6일까지 '새해 축하 빅세일'을 연다. 이 기간 플로리아 화이트닝 캡슐 에센스를 제외한 플로리아 화이트닝 라인을 50%, 인텐스 케어 스테일 크림·루미너스 동안광채 씨씨밤 등을 30% 할인 판매한다. 세일 기간 동안 포인트 적립 및 사용은 제한된다.

에뛰드도 4일까지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최대 30% 저렴하게 파는 '뉴 이어 위크, 뉴 유' 행사를 진행한다. 기존 회원이 아니더라도 매장에서 신규 가입하면 당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지원기자



휘닉스파크서 소치올림픽 종목 체험

8~9일 웰니스 페스티벌

강원도 평창 휘닉스파크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 개막을 맞이해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2014 휘닉스파크 웰니스 스노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휘닉스파크는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 이벤트 대회는 물론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8일과 9일 양일에 걸쳐 휘닉스파크 익스트림파크에서는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인 슬로프스타일과 스키·보드 크로스대회가 열린다. 대회는 고객들에게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가 신청은 휘닉스파크 홈페이지(www.pp.co.kr)에서 하면 된다.



이와 함께 휘닉스파크는 페스티벌 기간 동안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준비했다.

8일에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웰니스 눈썰매 왕중왕전'이 펼쳐진다. 사전에 웰니스강원 페이스북(www.facebook.com/wellness.gw)에서 참가 접수를 해야 하며 입상자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주어진다.

또 스키·보드 등 익스트림 스포츠 마니아들이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웰니스 힐링 피트니스'도 진행된다. 부상을 입은 운동선수나 익스트림 스포츠 마니아는 물론 현대인들에게 많이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받고 운동·재활치료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9일에는 스노슈즈를 신고 해발 700m에 자리 잡은 웰니스 치유의 숲길을 걸어볼 수 있는 '웰니스 스노우슈잉 체험' 이벤트가 이어진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은 휘닉스파크와 함께 지식경제부 산하 강원선도 사업 프로젝트인 '웰니스+강원'이 함께 마련했다. /황재용기자

천재교육 자기주도학습지 '월간우등생' 3월호 이벤트

천재교육이 자기주도학습지 '2014 월간우등생학습' 3월호 이벤트를 진행한다.

월간우등생학습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능력별 학습 계획표를 제공하고 학생 스스로 예습과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교재의 주된 특징은 올해 교육과정을 반영해 '스토리텔링'을 강화한 것이다. 그 외 새 학년 예습을 위한 '일일수학', 연 14회 시험대비구성 등이 포함된다.

해당 상품은 오는 4일부터 3월 16일까지 천재교육 에듀몬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다. 가격은 12만 9000원.



E metro entertainment



‘쇼트트랙춤’의 멋 아직 모르세요?

타이틀곡 ‘뭣 모르고’ 들고 데뷔한 5인조 아이돌 **가물치**

“독특한 안무 + 중독성 강한 노랫말… 우린 남자 크레용팝 팀명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아… 신화처럼 장수 그룹 되고파”

“신화 선배 같은 그룹이 되고 싶어요.”

올 상반기 가요계는 아이돌과 솔로 가수들의 연이은 컴백으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신인그룹 가물치(로키·아토·지로우·보너스·큐)가 가요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들은 지난달 7일 미니앨범 ‘비욘드 디 오션’의 타이틀곡 ‘뭣 모르고’로 데뷔했다. 크레용팝 후배 그룹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가물치는 독특한 안무와 중독성 강한 노랫말로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충분했다.

◆ 팀명 “이젠 애착심 생겼죠.”

가물치는 크레용팝 후배라는 타이틀과 독특한 팀명 덕분에 데뷔 초 화제를 모았다. 무엇보다 가물치라는 이름은 멤버들에게도 다소 황당했다. 래퍼이자 유학파로 영어에 능숙한 지로우는 “가물치가 물고기 이름인 줄도 몰랐다”며 “가요계 챔피언이 되라는 ‘챔프’와 혁명을 일으키라는 의미에서 ‘리볼’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팀명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큐는 “대표님이 처음에 팀 이름을 가물치라고 했을 때는 농담인 줄 알았다. 데뷔 전이었으니까 ‘바뀌겠지, 데뷔할 때는 다른 이름이겠지’라며 믿지 않았다”며 “그런데 가물치가 생존력과 지구력이 강한 물고기라는 것을 알고 나서 마음을 굳혔다. 이젠 애착심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 크레용팝 후배 가물치

이들의 행보를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크레용팝이 떠오른다. 길거리 홍보, 따라 하기 쉬운 안무 등이 흡사하다. 데뷔 앨범 ‘비욘드 디 오션’의 타이틀곡으로 내세운 ‘뭣 모르고’는 크레용팝의 히트곡 ‘빠빠빠’의 원곡을 변형한 버전이다. 크레용팝이 ‘직렬5기통춤’으로 지난해 가요계를 강타했다면 가물치는 ‘쇼트트랙춤’ ‘지구방위대춤’을 선보였다.

“안무 포인트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데 팬들이 직접 이름을 붙여줬어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겨냥한 건 아니에요.”(보너스)

데뷔 초 팬카페 회원은 1000여 명을 넘어섰다. 매일같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팬과 소통하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크레용팝 선배님들은 ‘팝저씨’ 팬들과 족발 번개를 하는 등 꾸준히 소통하고 있죠. 저희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데뷔했잖아요. 팬들과의 소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우린 ‘가줌마?’라는 팬층이 생겨나지 않을까요?”(웃음)

◆ 꿈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연기자부터 댄서까지 멤버 각자의 꿈은 달랐다. 덕분에 이들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도 생겼다. 지로우는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에 갔다. 아이돌보다는 외국에서 힙합 음악을 하고 싶었고 한국에서 힙합 공연을 개최한 적도 있다. 앞으로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한 로키는 “연기자가 꿈이었다. 연기자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정지훈 선배님을 보고 충격받았다. 정지훈 선배님처럼 만능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어 가수로도 데뷔하게 됐다. 연기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하고 싶다”고 밝혔다.

창원대 무용경연대회 특상, SBS ‘스타킹’ 발굴 댄스무용경연대회 1등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보유한 막내 아토는 “어렸을 때부터 춤을 췄고 가수보다 댄서를 원했다. 그런데 크레용팝의 데뷔 무대를 TV로 본 뒤 그런 스타일 가수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춤과 노래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하고 싶다”며 가수를 꿈꾸게 된 계기를 전했다.

보너스는 “초등학교 때부터 TV에 나오는 사람 중에 가수가 가장 멋졌다. 장기자랑을 하는 무대가 있으면 꼭 했다. 자연스럽게 가수의 꿈을 키워왔다”고 밝혔다.

메인보컬 큐는 “학창 시절부터 밴드 활동을 했다. 가수가 되고 싶다기보다 휘성 선배님 무대를 보고 나서 감동받아서 저렇게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어떤 그룹이 되고 싶냐는 질문에 가물치 멤버들은 “가물치가 장수하는 민물고기인 만큼 신화 선배님들처럼 장수하는 그룹이 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사진/박동희(라운드테이블)·디자인/박은지



www.imtcast.com
때론 달콤하게 -
때론 상쾌하게 -
때론 유쾌하게 -
t나게 tv보자!
눈으로 즐기는 T-time t.cast
t.cast 최강 컨텐츠 리딩 그룹!
[드라마에서 영화, 애니메이션까지… Tcast는 남녀노소 모두를 만족시키는 수준 높은 컨텐츠를 공급하는 10개의 채널을 보유한 컨텐츠 미디어 그룹입니다.]
E channel SCREEN DRAMAcube view FashionN CINEf CHAMP FOX FOXlife FX

일본팬 3만6000명이 외쳤다 "2PM, 2PM"

나고야·요코하마 공연 성황리에 마쳐… 여섯빛깔 야광봉 물결 '장관'

오리콘 차트 1위로 새해를 맞이한 2PM이 아레나투어의 열기로 열도를 녹였다.

2PM은 설날 연휴도 반납한 채 지난달 27~28일 일본 나고야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요코하마에서 아레나투어 '제네시스 오브 2PM'을 개최했다. 요코하마에서는 총 3회 공연으로 3만6000여명을 동원했다.

거대한 아레나를 압도하는 오프닝으로 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2PM은 고유의 캐릭터인 짐승돌의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함성을 고조시켰다.

남성미 넘치는 단체 무대뿐 아니라 음악적 성장과 개성이 느껴지는 솔로 무대로 콘서트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공연장은 1만2000명의 관객이 흔드는 여섯 가지 색깔의 야광봉으로 장관을 이뤘다.



2PM이 2일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열린 아레나투어에서 새 앨범 수록곡을 부르고 있다. /JYP엔터테인먼트 제공

2PM은 투어 중인 지난 29일 일본 정규 3집 '제네시스 오브 2PM'을 발표해 오리콘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 나고야에서는 준호와 준케이, 요코하마에서는 찬성의 생일파티가 공연 중 열려 팬들을 즐겁게 했다.

2PM은 "세 번째 아레나투어로 매회 설렘과 긴장 속에 팬들과 만나고 있다. 이번 투어 중에 오리콘 1위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벅차올랐다"며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멋진 무대와 공연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PM은 나고야·요코하마에 이어 다음달 말까지 후쿠오카·오사카·도쿄까지 총 5개 도시에서 14회 공연으로 15만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아역배우 김새론 "음주·흡연이라뇨?"

최근 음주 및 흡연 사진 논란에 휩싸인 아역배우 김새론(15·사진)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해명글을 게재한 것에 이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새론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3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속 배우 김새론의 사진 및 글과 관련해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사진과 함께 왜곡된 내용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인 결과 사진 촬영 당시 김새론은 부모님 동행하에 친구 집을 방문했고 다른 친구의 아버지 역시 동석해 계셨으며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절대 없었다"며 "한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그날 처음 본 친구들이었고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날 같이있던다른 친구들의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사진과 김새론은 아무 연관성이 없으니 더 이상의 유추와 억측은 자제 부탁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새론은 2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몇 번 보지 않은 동네 친구였고 그 장소에 술·담배가 있는 줄 몰라서 죄송하다"며 술·담배 논란에 관한 해명글을 게재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180도 김희선

'참 좋은 시절'서 도회적 이미지 탈피 경상도 사투리 쓰는 차해원 역 맡아

배우 김희선(사진)이 KBS2 새 주말극 '참 좋은 시절'로 데뷔 이래 최대 변신을 시도한다.

오는 22일 방송되는 '참 좋은 시절'에서 김희선은 차해원 역을 맡아 경상도 사투리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이색 변신을 앞두고 있다. 세련되고 도회적 이미지의 김희선은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고 할 만큼 180도 달라진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제작진은 "시청자들이 들으면 놀랄 정도다. 함께 출연하는 경상도 출신 류승수도 김희선에게 틈틈이 사투리를 지도해주며 격려해줬다"고 밝혔다.

서울 태생인 김희선이 이처럼 본토 발음에 능숙한 이유는 바로 부모님의 고향이 모두 경상도이기 때문이다. 김희선은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사투리의 악센트와 억양을 듣고 자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하반기에 일찌감치 캐스팅된 이후 집중적으로 사투리 훈련을 받아온 것도 그 성과로 꼽힌다.

김희선은 "극중 리얼리티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사투리 구사는 해당 배우의 필수 과제다. 얼마나 비슷하게 구사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연습하고 있다. 억수로 사랑해주이소"라고 애교 섞인 포부를 밝혔다.

'참 좋은 시절'은 '왕가네 식구들' 후속으로 방송된다.

/양성운기자 ysw@

B.A.P 부드럽고 섹시하게 돌아왔다

그룹 B.A.P(사진)가 신곡 '1004'를 통해 한층 부드럽고 섹시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B.A.P는 3일 첫 번째 정규앨범 '퍼스트 센서빌리티'를 발표했다. 이번 앨범에 담긴 13개의 트랙을 통해 B.A.P는 다양한 음악 장르에 도전하는 등 음악적으로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관심을 끄는 것은 타이틀곡 '1004' 뮤직비디오에서 드러난 이들의 스타일 변신이다.

앞서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는 '1004'에서 B.A.P의 콘셉트에 대해 "그동안 어필해온 '전사'의 이미지가 아닌 댄디함과 섹시함을 동시에 어필하는 성숙한 이미지"라고 언급한 바 있다.

'1004' 뮤직비디오 속에서 선보인 안무는 그동안 B.A.P가 보여온 '전사'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담겨있다. 절제된 카리스마와 이별로 인한 끝없는 슬픔과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절규하는 남자의 모습을 한 편의 드라마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로 완벽하게 담아냈다. 여기에 안무 중간중간 선보이는 골반 댄스는 섹시함까지 묻어난다.

한편 B.A.P는 다음달 8일과 9일 단독 공연 'B.A.P 라이브 온 어스 서울 2014'로 팬들과 만난다. /양성운기자

일본서 '강남스타일' 부르는 싸이

4월 'YG 패밀리 콘서트' 출연

'월드스타' 싸이(사진)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강남스타일' 무대를 선보인다.

싸이는 4월 12~13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과 5월 3~4일 도쿄돔에서 열리는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합동 공연인 '2014 YG 패밀리 콘서트'에 출연한다. 싸이는 '강남스타일' 발표 직전인 2012년 초 'YG 패밀리 콘서트'로 일본에서 공연했고, 당시 현지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캐릭터로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싸이는 국내에 '강남스타일'을 발매할 당시 일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롯폰기 스타일'로 개사한 곡으로 현지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가운데 유독 일본 음악 시장에서만 냉랭한 분위기를 보여 이번 공연은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만 21만 명을 동원할 'YG 패밀리 콘서트'는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는 싸이·빅뱅·2NE1·에픽하이·이하이·위너를 비롯해 새롭게 YG에 합류한 가수들이 참여한다. /유순호기자



가수로 보폭 넓히는 장근석

프로젝트 그룹 팀에이치와 솔로 두가지 공연으로 해외투어



한류스타 장근석이 올해 해외에서 가수로서의 입지를 넓힌다.

매년 일본 등 아시아 일대에서 투어를 진행해오고 있는 그는 올해 프로젝트 그룹인 팀에이치와 장근석 개인 두 가지로 공연을 분리해 해외 투어에 나설 계획이다. 자연스럽게 연기보다 가수 활동에 주력한다.

팀에이치 공연에서 가수로서 역량을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디제잉 및 밴드 연주를 보여줄 수 있는 개인 공연을 별도로 진행해 해외에서 장근석이라는 브랜드를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일정은 잡지 않았고 콘셉트에 대해 논의 중인 단계다. 특히 개인 공연은 대규모로 진행할지 아니면 제프 투어처럼 팬들과 가까이 만나는 소규모로 할지 고민 중"이라면서 "지난해에도 바빴는데 올해는 두 가지 투어를 동시에 진행해 더욱 바빠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일본 5개 도시를 돌며 '직진 라이브 투어 인(in) 제프'를 펼친 장근석은 지난달 29~31일 마지막 공연을 열어 투어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장근석은 "그동안의 큰 무대들과 달리 관객과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소통할 수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공연이었다.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밴드와 상의해 같은 곡도 다르게 구성해나가며 새로운 무대로 만들 수 있었기에 스스로도 즐길 수 있고 자랑스러웠던 투어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8일에는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3000석 규모의 팬미팅을 열고 국내외 팬들을 만난다.

/탁진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직진 라이브 투어 in 제프'를 펼치는 장근석. /트리제이컴퍼니 제공

정선아 김준수와 '한솥밥'

씨제스와 계약… "그는 한류 뮤지컬 이끌 주역"



뮤지컬스타 정선아(사진)와 김준수가 한 소속사 아래 뭉쳤다.

JYJ 김준수의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는 3일 "정상의 뮤지컬 여배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정선아와 한 식구가 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배우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수와 정선아는 뮤지컬 '모차르트!'에서 연인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씨제스는 정선아와의 계약을 시작으로 향후 재능 있고 잠재력 높은 배우들을 추가로 영입할 계획이다.

백창주 씨제스 대표는 "김준수는 지난 4년간 뮤지컬의 대중화와 '한류 뮤지컬'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력을 입증하며 대표 배우로 자리매김했다"며 "정선아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제작자들도 인정하는 독보적인 실력으로 평가받고 있어 한류 뮤지컬을 이끄는 주역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씨제스의 종합 콘텐츠 비즈니스 시스템과 영향력 있는 두 배우가 만난 시너지는 뮤지컬 매니지먼트의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선아는 2002년 뮤지컬 '렌트'로 데뷔한 뒤 '드림걸즈' '지킬앤하이드' '아이다' '에비타' 등을 통해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지난해 제19회 한국 뮤지컬 대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뮤지컬 '위키드'에서 글린다 역을 맡아 열연 중이다.

한편 씨제스에는 JYJ를 비롯해 최민식·설경구·이정재·박성웅·송지효·거미·강혜정·박유환 등이 소속돼 있다. /탁진현기자

"'신이 보낸 사람' 종교 단체 신천지와 관계 없다"



영화 '신이 보낸 사람'(사진) 제작사가 종교단체 신천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제작사 태풍코리아는 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신이 보낸 사람'과 신천지는 그 어떤 연관도 없음을 알려드린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 및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서 신천지의 홍보 수단으로 이 영화가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작사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현재 제작사 측으로 신천지와의 관계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더 이상 이대로 방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 공식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화는 자유, 희망, 믿음 그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 북한의 참혹한 현실을 알리고자 제작됐다"면서 "앞으로 제작 의도를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3일 개봉될 '신이 보낸 사람'은 자유와 인권마저 잃은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의 참혹한 현실을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실화 영화다. 김인권·홍경인 등이 출연한다. /탁진현기자

할리우드 연기파 배우 호프먼 사망



미국의 남자 배우 필립 시모어 호프먼이 2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사망했으며 당국은 약물 과다 복용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은 2006년 오스카상 시상식에서 그가 '카포티'에서의 호연으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던 모습이다. /AP 뉴시스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진 듯

할리우드 연기파 배우 필립 시모어 호프먼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46세.

미국 뉴욕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호프먼은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팔에 주사기를 꽂고 헤로인으로 보이는 물질이 담긴 비닐봉투를 옆에 놓은 채 숨져있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경찰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오랜 기간 약물 중독과 싸워온 호프먼은 지난해 인터뷰에서 23년간의 금욕을 깨고 다시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으며 헤로인 복용으로 재활시설에 입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미션 임파서블 3' '부기 나이트' 등에서 개성 강한 캐릭터를 보여온 호프먼은 최근 '헝거게임' 시리즈로 인기를 누렸다. 주·조연을 넘나들며 개성 강한 연기를 보여준 호프먼은 2006년 영화 '카포티'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마스터'로 베니스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차지했다.

연극 무대에서도 활발히 활동해 토니상 후보에 세 번 올랐다. 최근에는 중년 남성의 행복 추구를 다루는 코미디 시리즈 '해피시' 출연이 결정됐고, 감독 데뷔도 준비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유순호기자 suno@

우디 앨런 "성추행 사실 아냐"



세계적인 영화감독 우디 앨런(사진)이 양녀 성추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앨런의 홍보담당자 레슬리 다트는 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양녀 성추행 의혹 기사를 읽은 앨런이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모욕적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앨런과 여배우 미아 패로의 입양아인 딜런은 전날 뉴욕타임스에 공개 서한을 보내 "7세 때 아버지에게 상습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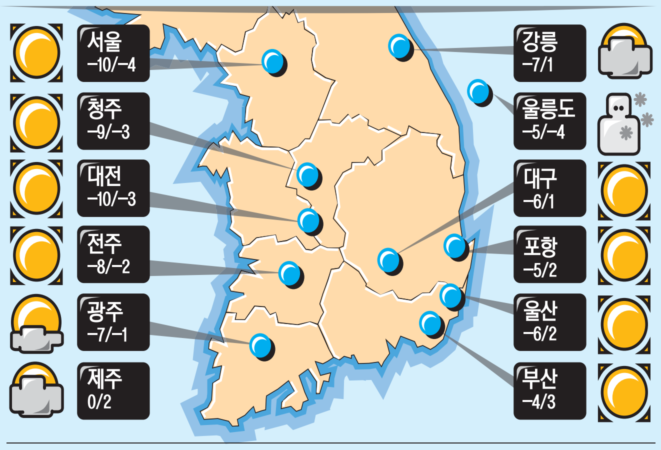
앨런은 이미 1992년 딜런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기소되지 않았다. 앨런은 그해 패로와 이혼했으며, 1997년 패로의 입양아인 한국계 순이 프레빈과 결혼했다.

한편 앨런은 지난달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영화 '블루 재스민'으로 평생 공로상을 받았다. /탁진현기자

날씨

2/4 火 일출시각 07:33 일몰시각 17:5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명절 연휴가 지나면 요통, 관절통, 어깨 통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이 자주 찾아옵니다. 틈틈이 스트레칭 체조와 근육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기 가능 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9			4		1			2
		5		2		4		
	2	4				3	9	
8			1		5			3
	9						8	
6			3		8			9
	3	8				1	6	
		7		1		9		
5			6		3			7

						1	3	
	4				3			2
		1						4
	5						7	
6		7	5					
1	8	9		6				
		5	1	9		4		
4			7		6		5	
	6		2	4				

스도쿠 정답

9	8	6	4	3	1	7	5	2
3	7	5	9	2	6	4	1	8
1	2	4	5	8	7	3	9	6
8	4	2	1	9	5	6	7	3
7	9	3	2	6	4	5	8	1
6	5	1	3	7	8	2	4	9
2	3	8	7	5	9	1	6	4
4	6	7	8	1	2	9	3	5
5	1	9	6	4	3	8	2	7

8	7	2	9	5	4	1	3	6
5	4	6	8	1	3	7	9	2
3	9	1	6	7	2	5	8	4
2	5	4	3	8	9	6	7	1
6	3	7	5	2	1	9	4	8
1	8	9	4	6	7	3	2	5
7	2	5	1	9	8	4	6	3
4	1	8	7	3	6	2	5	9
9	6	3	2	4	5	8	1	7

문제 제공= 보누스
'슈퍼스도쿠 마스터'
(퍼즐러 미디어 리미티드 지음)

창의성보다 책임감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백 투 더 퓨처'는 영화를 넘어 명화로 회자되는 SF 작품이다. 주인공은 괴짜 과학자가 만든 자동차를 타고 시속 88마일로 달려 원하는 시간대로 이동한다. 사람들의 상상력은 달 착륙으로 만들어진 우주여행에서 시간여행으로 옮겨졌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미래로 가기 위해 설정한 시간은 '2014년 1월 26일 1시 21분'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다.

앨빈 토플러는 1980년 '제3의 물결'이란 책에서 정보통신기기의 대중적 보급으로 나타날 탈대중화 사회를 예측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고갈에 따른 대체에너지의 필요성,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지는 생산소비자의 개념도 피력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 앨빈 토플러는 문명비판가 혹은 문명 평론가였다. 지금은 미래학자의 시조로 손꼽힌다. 유엔미래포럼, 세계미래회의, 세계미래학회 등 대형 미래학회들의 출발점인 셈이다.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들은 더 이상 SF 작품을 못 하게 될까 걱정이다. 관람객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환상을 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상상을 하든 관람객에게 새로움을 주지 못한다며 안절부절 못한다. 반면 영화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오페라, 뮤지컬, 연극은 창의적 작품이 쏟아지고 있다. 시나리오 작가나 연출가는 SF적 상상력이 아닌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무장하고 전진 또 전진한다.

우리는 표준화에 이끌려 살아왔다. 삶의 모든 행위를 사회적 기준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혹은 기준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로 유효성을 판단했다. 그러는 동안 자연스레 사람이 가진 고유한 특질은 무시됐다. 오욕칠정으로 대변되는 감정과 자유, 평화, 박애로 얘기되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지, 덕, 체로 압축되는 건강함의 가치는 '따위'로 폄하돼 희소성이 높아졌다. 덕분에 사람이 가진 근원적 요소의 소중함이 드러나게 됐다.

바야흐로 상상력 혹은 창의성보다 책임감이 주목받는 시대다. 창의성은 흔해졌고, 책임감은 희소해졌기 때문이란 게 씁쓸하기는 하지만.

/인터패션플래닝(www.ifp.co.kr) 대표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사업 안돼 취업할까 하는데요 건축 관련 창업하면 성공할것

미2 남자 73년 6월 23일 음력

Q 뒤늦게 전문대를 졸업하고 친구들과 IT 분야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돼 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 나이 먹도록 여자친구도 사귀어보지 못했는데 연애운은 언제쯤 트일까요?

A 오는 4월이나 5월에 소개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부인 자리를 뒤늦게 만나지만 암록(暗綠)과 복성귀인(福星貴人)의 성분으로 평생 궁핍함이 없게 되는 명입니다. 건축 관련 일과 인연을 맺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취업보다는 사업이 맞습니다. 새로운 분야라고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 도전하십시오. 육수성(六秀星)이 사주 구조에 있어 성격은 급하고 재치가 있는 반면 장래를 기약하고 모으는 기운은 부족하니 시간을 아껴 자기 계발하고 어학 실력을 쌓으십시오. 아르바이트라도 눈에 띄는 대로 곧바로 시작해 바삐 지내면서 기회를 잡도록 하세요. 3월에 친구 따라 강남 가듯 투자할 기회가 오니 실패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별한 후 불교에 의지해 생활 불심 키우며 기술 배우면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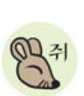
타임파워 여자 52년 8월 26일 음력 오후 11시~오전 1시

Q 사별한 뒤 친정 도움으로 살았는데 재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불교에 의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지 스님이 도움을 주시기도 하는데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A 그간 여러모로 힘들었지만 아름답게 살아오셨습니다. 귀문살(생사의 기운)의 기운이 충살을 받는 해에 사별도 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남자운이나 재물운이 크게 발복하지는 않습니다. 음양차착(陰陽差錯)으로 상부극처(傷夫剋妻)하게 되니 재취를 하더라도 안락한 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불심을 키우며 늦게라도 무언가 기술을 배워가며 사십시오. 수(水) 사주라 현실적으로 고생에서 벗어날 방법은 뾰족히 없습니다. 마음에 와 닿지는 않겠지만 인생은 60대부터이니 영업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매달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도록 하세요. 7월 비 오는 날에는 외출에 특히 주의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2월 4일 (음 1월 5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탐내던 물건을 얻게 된다. **60년생** 자금 부족하면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72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84년생** 기회 잡을 때까지 묵묵히 참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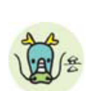
49년생 대접받으려면 말을 아껴라. **61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73년생** 차가운 머리로 새 길을 찾아라. **85년생** 직장인은 좋은 성과를 거둬 격이 달라진다.



50년생 너무 세심하면 숲을 못 본다. **62년생**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여라. **74년생** 원하던 대답 못 들어 발길이 무겁다. **86년생** 상사의 칭찬에 유쾌한 하루.



51년생 아랫사람에게 융통성 보여라. **63년생** 어설프게 준비하면 맥없이 무너진다. **75년생** 변수 많으니 끝까지 긴장하라. **87년생** 마음 흔드는 이성과 만난다.



52년생 주변의 의견 중시하는 게 좋다. **64년생** 보석을 얻으려면 더 공들여라. **76년생** 너무 뜸들이면 찾아온 기회 놓친다. **88년생** 하고 싶은 말 많아도 참아라.



53년생 꼭 해야 할 일부터 정하라. **65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서서히 풀린다. **77년생** 믿고 일을 맡기는 상사가 고맙구나. **89년생** 뜻을 관철하려면 선수를 쳐라.



42년생 포용력이 절실하다. **54년생** 강자의 반대편에서 베팅하지 마라. **66년생** 안 될 일은 빨리 포기할수록 좋다. **78년생** 상황 어려워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43년생 타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라. **55년생** 생각지도 못한 목돈이 들어온다. **67년생** 변수 많은 날이니 복지부동할 것. **79년생** 애매한 일은 '노'라고 대답하라.



44년생 감정적인 대응은 잃는 게 많다. **56년생**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금물. **68년생** 직장인은 중책을 맡아 어깨 무겁다. **80년생** 새로운 일은 벌이지 마라.



45년생 집안일도 타인과 협의할 것. **57년생** 투자 계획은 보류하는 게 좋다. **69년생** 갑자기 연락 온 사람 만나지 마라. **81년생** 상사 눈에 띄어 한 자리 얻는다.



46년생 들뜬 마음은 안정된다. **58년생** 시대의 흐름에 맞춰야 만사형통. **70년생**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면 얻는 게 많다. **82년생** 정리할 것은 곧바로 정리할 것.



47년생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59년생** 덕담 쏟아져 기분 좋다. **71년생** 여행이나 나들이 계획은 나중으로 미뤄라. **83년생** 돈을 쓸 좋은 일이 갑자기 생긴다.

●1인용 침대 좁은 편 ●김치, 고춧가루 버무린 채소 ●칸막이 없는 2인용 변기

'불편 덩어리' 소치 선수촌

sochi.ru 2014 D-3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준비에 무려 500억 달러(약 54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선수촌 환경은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소치에 도착해 결전의 마음으로 선수촌에 짐을 푼 선수단은 하나같이 "열악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연아(23)를 제외한 대표팀 선수 대부분은 대회 기간에 선수촌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빙상과 컬링 선수단은 올림픽 파크가 있는 해안 클러스터 선수촌에 묵고, 썰매 종목 선수단은 산악 클러스터 선수촌에 입촌한다. 그러나 모두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비해 좁고 불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악 클러스터에 묵는 종목 대표팀의 한 코치는 "밴쿠버올림픽의 선수촌 숙소는 거실과 방이 딸린 아파트 형태여서 선수단이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고 전략도 구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곳은 방의 공간이 비좁은 것은 아니지만 2인 1실의 단칸방 형식이어서 선수단을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소치올림픽 '쌍둥이 변기'. /AP 연합뉴스

해안 클러스터의 선수촌에 묵는 선수단 관계자도 "침대가 성인 한 명이 자기에는 좁은 편"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식사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선수단 관계자는 "식당 한식 코너에 김치가 나오지만, 고춧가루에 버무린 채소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미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된 칸막이 없는 화장실은 개선하겠다던 조직위원회의 해명과 달리 또 다른 곳에서도 발견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며 러시아 소치의 올림픽 해안 클러스터 내 메인미디어센터(MMC) 근처 여성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칸막이 없는 화장실이 발견됐다. 화장실 한 칸에 변기 2개가 설치된 '쌍둥이 변기'로 지난달 바이애슬론 경기장 내 화장실에서 영국 공영방송 BBC 통신원이 트위터를 통해 공개하면서 처음 발견됐다.

사진이 공개되고 난 뒤 누리꾼 사이에서는 소치올림픽 예산이 허투루 쓰인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홍명보 조용한 귀국…"조직력 보완해야"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3주간의 전지훈련과 세 차례 평가전을 마치고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평가전에서 1승2패의 성적을 거둔 대표팀은 2일 미국전을 마치고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이날 공항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홍 감독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남아 곧 유럽으로 출발할 계획이다.

세 차례 평가전에서 1골 밖에 넣지 못한 공격진 보강을 위해 유럽에서 활약하는 해외파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면담을 할 예정이다. 박지성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세 차례 평가전에서 무득점에 그친 공격수 이근호(상주)는 이날 브라질 월드컵 본선 엔트리에 들기 위해 소속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열심히 준비했지만 체력이나 집중력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월드컵 본선에서 강팀과 맞서려면 조직력 등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자평했다.

최근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구자철(마인츠) 등 해외파 공격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이는 것에 대해 "해외파가 잘하면 대표팀에 큰 힘이 된다"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더 노력해 K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해외파 선수들과도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표팀은 이날 곧바로 해산해 각자 소속팀으로 돌아간 뒤 다음 달 6일(한국시간) 그리스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재소집된다.

/김학철기자 kimc0604@



시애틀 창단 첫 슈퍼볼 우승 3일 뉴저지주 이스트러더포드 메트라이프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풋볼(NFL) 2014 슈퍼볼에서 시애틀 시호크스의 쿼터백 러셀 윌슨이 우승 트로피 빈스 롬바르디를 들어 올리고 있다. 초반부터 덴버 브롱코스를 압박하며 43-8로 완승을 거둔 시애틀은 창단 38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AP 연합뉴스

박주영 데뷔전 '짧지만 반가운 5분'

96일만에 그라운드 밟아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 왓포드로 '깜짝' 임대 이적한 박주영(29·사진)이 96일 만에 그라운드를 밟았다.



박주영은 3일 영국 왓포드의 비커리지 로드에서 열린 2013~2014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 브라이턴 호브 앨비언과의 홈경기에서 2-0으로 앞선 후반 추가시간 교체 투입됐다. 아스널 소속이던 지난해 10월 30일 첼시와의 캐피털원컵 16강전 후반 36분 교체 투입 후 96일 만이다. 박주영은 5분 정도밖에 뛰지 못해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한편 '산소탱크' 박지성(33·에인트호번)이 네덜란드 프로축구 정규리그에서 3경기 연속 선발 출장했지만 팀은 최하위 팀에 덜미를 잡혔다. 에인트호번은 이날 네덜란드 노르트브라반트주 발베이크의 만데마케르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3~2014 에레디비지에 21라운드 원정경기에서 0-2로 완패했다.

/양성운기자

프로농구 전적 3일

신한은행	18	10	15	22	65
KDB생명	15	16	18	9	58

멘토와 함께

인생의 지도를 펼치다!

한국인재멘토링네트워크 지도자급 멘토링에 함께 할 대학생 멘티를 모집합니다.
사회 각 분야의 리더들이 대학생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도와 드리는 기회,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2014년도 제5기 한국인재멘토링네트워크 지도자급 멘토링」

대학생 코멘티 모집 공고

모집요강

- **활동기간** 2014년 3월 ~ 12월
- **모집기간** 2014. 2. 3(월) ~ 2. 14(금) 23시 59분, 12일간
  ＊일부 기간 변동 가능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제출서류** 지원서(온라인작성), 성적증명서, 봉사활동 증명서 등



멘티 지원사항

- 코멘트데이, 리더십캠프(콘서트) 등 행사 참가(비용 없음)
-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 프로그램 신청 자격 부여
- 일정 기준 충족시, 수료증 수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명의)
- 우수활동 멘티대상 기업연계 인재추천 기회 제공(멘토 추천)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